

〈기획 논문 - 접경의 인문학 : 조우와 충돌〉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 接境空間의 변화*

余昊奎**

목차

- I. 머리말
- II. 北魏와의 교섭로를 통해본 勿吉의 중심지
 - 1. 475년 물길과 북위의 교섭로
 - 2. 동류 松花江 중하류의 고고문화와 물길의 중심지
- III. 高句麗와 勿吉의 충돌과 각축전의 전개
 - 1. 대북위 교섭로에 나타난 고구려와 물길의 충돌 양상
 - 2. 後扶餘의 멸망과 북류 송화강 하류를 둘러싼 각축전
- IV. 高句麗의 북방 接境空間 및 諸族과의 관계 변화
 - 1. 고구려 북방 접경공간의 변화
 - 2. 고구려 북방 제족의 분포 양상
 - 3. 고구려와 북방 제족의 관계 변화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5세기 후반 만주 동부지역에서 勿吉이 흥기해 고구려의 변경을 공격하는 한편, 475년에 北魏에 사신을 파견하며 국제무대에 등장했다. 또한 494년에는 後扶餘가 물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고구려에 투항했다. 물길의 흥기와 후부여의 멸망은 고구려 북방 경역의 축소 나아가 주변 세력에 대한 영향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에 종래 많은 연구자들이 물길의 흥기에 따른 고구려의 북쪽 국경 변천 및 국제정세의 변화 양상을 다각도로 고찰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물길은 본래 만주 동부지역에 거주했는데, 東流 松花江 상류와 북류 송화강 방향으로 진출했다. 물길의 흥기는 주민집단의 대규모 이주라는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물길의 흥기는 고구려의 국경선 축소에 그치지 않고, 북류 송화강 일대에 종전의 부여어나 고구려인과 함께 물길인이 혼거하는 양상을 초래했다. 또한 고구려가 북류 송화강 일대를 거점으로 삼아 北方 諸族과 교섭했다는 점에서 물길의 흥기는 고구려와 북방 제족의 관계도 변화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주민구성의 다원화나 북방 제족과의 관계 변화는 국경선 축소에 비해 더욱 장기적으로 고구려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문헌사료와 고고자료를 종합해 5세기 후반 물길의 흥기과정 및 고구려와의 충돌양상을 검토한 다음, 고구려 북방 접경공간의 변화 및 북방 제족과의 관계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주민구성의 다원화 양상을 파악하려면 문헌사료와 함께 고고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지면 관계상 본고에서는 개략적인 양상만 살피고 후고를 통해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II. 北魏와의 교섭로를 통해본 勿吉의 중심지

1. 475년 물길과 북위의 교섭로

5세기 후반 勿吉의 흥기 과정을 고찰하려면, 그 중심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물길의 진출 루트나 고구려와의 충돌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물길과 북위의 교섭로가 주목된다.

①-① 勿吉國은 高句麗 북쪽에 있는데 옛날 肅慎國이다. (중략) 洛陽에서 5천리 거리이다. 和龍에서 북쪽 2백여 리에 善玉山이 있고, 그 산에서 북쪽으로 13일 가면 祁黎山에 이르며, 또 북쪽으로 7일 가면 如洛瓌水에 이르는데 강의 너비가 1리 남짓이다. 또 북쪽으로 15일 가면 太魯水에 이르고, 또 동북으로 18일 가면 그 나라에 이른다. 나라에 큰 강이 있는데, 너비가 3리 남짓이고 速末水라 일컫는다. (《魏書》 권100 勿吉國傳)

①-㉔ 지난 延興 연간에 사신 乙力支를 보내 朝獻했다. 太和 연간 초에 또 말 5백필을 바쳤다. 乙力支가 말하기를 “처음 그 나라를 출발해 배를 타고 難河를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와 太瀾河에 도착해 배를 강에 가라앉힌 다음, 남쪽으로 육로로 나아가 洛孤水를 건너고, 契丹의 서쪽 경계를 따라 和龍에 도착했다”고 했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그 나라가 앞서 高句麗 10락을 격파했으며, 몰래 백제와 함께 모의해 水道를 따라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려는데, 乙力支를 大國에 사신으로 보내 可否를 청합니다.”라고 했다. 조칙을 내려 “3국은 모두 藩附했으니, 마땅히 함께 和順하고 侵擾하지 말라”고 했다. 乙力支가 이에 귀환했는데, 왔던 길을 따라 본래의 배를 취득해 타고서 그 나라에 도착했다. (《魏書》 권100 勿吉國傳)

사료 ①-①에서 보듯이 북위의 和龍[朝陽]에서 물길로 갈 때는 “화룡 북쪽 2백리의 善玉山 → 북쪽 13일 거리의 祁黎山 → 북쪽 7일 거리의 如洛瓌水 → 북쪽 15일 거리의 太魯水 → 東北 18일 거리의 물길 중심지[其國]” 등의 순서로 경유했다. 또한 475년에¹⁾ 물길의 乙力支는 “물길 중심지

→ 배를 타고 難河를 거슬러 西行 → 太瀾河 → 陸路로 南行 → 洛孤水渡河 → 契丹 서쪽 경계” 등을 경유해 화릉에 도착했다(①-④).²⁾

양자의 루트를 비교하면 如洛瓌水와 洛孤水, 太魯水와 太瀾河는 같은 하천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如洛瓌水=洛孤水는 《위서》 고막해전의 弱洛水로³⁾ 西遼河 상류의 시라무렌하, 太魯水=太瀾河는 嫩江 가장 남쪽

-
- 1) ‘延興’은 延興5년(475년) 10월이며(《冊府元龜》 권969 外臣部 朝貢2), ‘太和初’는 太和2년(478년) 8월이다(《魏書》 권7 고조기 太和2년 8월조). 478년의 사신 이름이 적혀있지 않지만, 乙力支일 가능성도 있다.
 - 2) 물길-북위 교섭로를 분석한 주요 논저는 다음과 같다.
白鳥庫吉, 1910-1912 <東胡民族考>《史學雜誌》 21-4~24-7; 1970 《塞外民族史研究(上)》 岩波書店
白鳥庫吉, 1919 <室韋考>《史學雜誌》 30-1~30-8; 1970 앞의 책
白鳥庫吉, 1935 <塞外民族>《東洋思潮》 12; 1970 앞의 책
津田左右吉, 1915a <勿吉考>《滿洲地理歷史研究報告(一)》; 1964 《津田左右吉全集(제12권)》 岩波書店
池內宏, 1934 <勿吉考>《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제15책)》; 1951 《滿鮮史研究(上世 제1책)》 吉川弘文館
日野開三郎, 1946b <勿吉考>《史淵》 35; 1988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東北アジア民族史(上)》 三一書房
孫進己·王志耿·孫秀仁, 1982 <松花江沿革考>《北方論叢》 1982-1; 1987 《東北歷史地理論著匯編(제1책)》 수록
楊保隆, 1985 <勿吉地域西南部邊至考>《北方文物》 1985-4
賈敬顏, <東北古地理古民族叢考>《文史》 12; 1993 《東北古代民族古代地理叢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賈敬顏, 1983 <東北古地理古民族叢考(續)>《北方文物》 1983-2
譚其驥(주편), 1988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東北券) 中央民族學園出版社
孫進己·王綿厚, 1989 《東北歷史地理》(제2권) 黑龍江人民出版社
王綿厚·李健才, 1990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李健才, 2001b <勿吉·豆莫婁·烏洛侯·失韋의地理位置>《東北史地考略(제3집)》 吉林文史出版社
范恩實, 2010 <勿吉興亡史探微>《北方論叢》 2010-1
송기호, 2008 <5세기 후반 고구려의 북방 경계선>《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김락기, 2013 《高句麗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경인문화사
 - 3) 《魏書》 권100 열전88 庫莫奚傳：“登國三年，太祖親自出討，至弱洛水南，大破之，獲其

지류인 洮兒河로⁴⁾ 각각 비정된다. 두 기사는 같은 하천의 명칭을 다르게 표기했으므로 전거가 달랐겠지만,⁵⁾ 전체 루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難河는 《위서》 오락후전에는 ‘難水’, 실위전에는 ‘捺水’로 나온다. 후술 하듯이 烏洛侯는 嫩江 중상류 서쪽의 大興安嶺山脈 동록에 위치했는데, “그 나라 서북에 完水가 있는데 동북으로 흘러 難水와 합류하며, 그 지역의 작은 하천은 모두 難水에 흘러들어[注] 동으로 바다로 유입된다.”고 한다.⁶⁾ 完水는 黑龍江[아무르강]의 상류 구간을 지칭하는데, 포물선을 그리며 흐르다가 동류 松花江과 합류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그 지역의 작은 하천이 모두 難水에 흘러들어 동으로 바다로 유입된다”는 것은 大興安嶺山脈 동록의 하천들이 嫩江과 합류하여 동류 松花江과 黑龍江 하류를 거쳐 바다로 유입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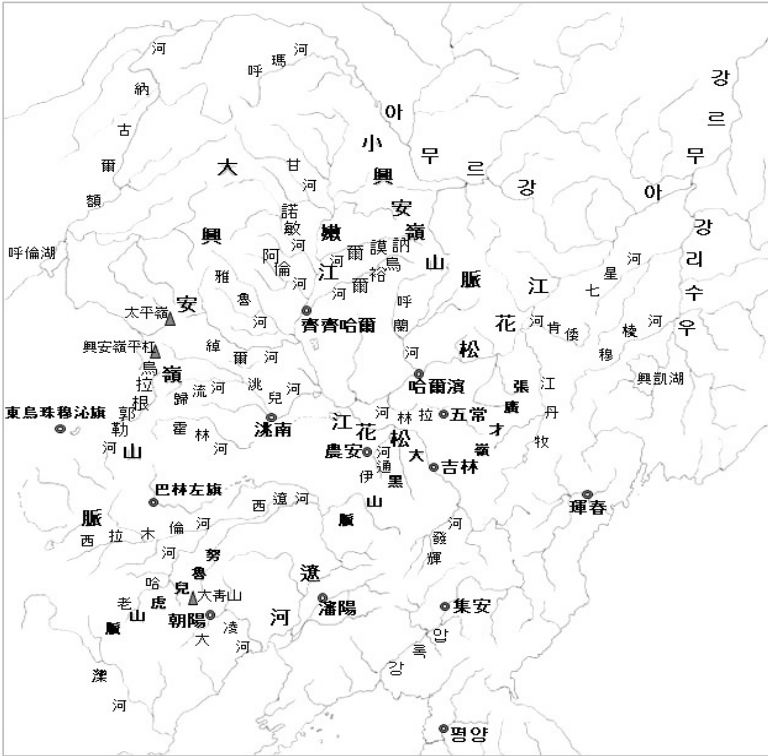
完水가 흑룡강 상류를 지칭한다면, 難水[難河]는 嫩江, 동류 송화강, 흑룡강 하류를 아우른 명칭이다.⁷⁾ 따라서 乙力支는 “難河를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왔다”고 하므로, 동류 송화강과 눈강 하류를 경유해 洮兒河[太瀾

四部落.”

- 4)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洮兒河 중하류는 두 개의 지류로 나뉘었다면서 太魯水=太瀾河를 洮兒河보다 남쪽에 위치했다는 瀾河로 비정하기도 한다. 瀾河는 洮兒河보다 넓었고, 서쪽으로 霍勒河(呼林河)와 연결되며, 동쪽으로 叉沽撓孢子(查干泊)을 거쳐 大榆樹 남쪽에서 북류 松花江으로 흘러들었다고 한다(賈敬顏, 1993 앞의 책, 38-40쪽).
- 5) ①-㉠은 물길의 사신 乙力支가 북위로 올 때 경유한 루트이다. 이에 비해 ①-㉠은 북위의 화룡을 출발해 물길로 가는 루트로 북위 사신이 남긴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을력지를 따라 475-476년경에 물길을 방문했다고 보거나(日野開三郎, 1988 앞의 책, 484쪽) 494년 물길이 부여를 점령한 이후 방문했다고 보는(池內宏, 1951 앞의 책, 478-482쪽) 등의 견해가 있다.
- 6) 《魏書》 권100 열전88 烏洛侯傳: “其國西北有完水, 東北流合于難水, 其地小水皆注於難, 東入于海.”
- 7) 孫進己·干志耿·孫秀仁, 1987 앞의 글, 270-271쪽; 王綿厚·李健才 1990, 106-110쪽; 李健才 2001b, 183-186쪽. 다만 唐代에는 難河=難水를 ‘那河=捺水’라 불렀는데, 눈강과 동류 송화강만 지칭하며, 흑룡강 하류는 ‘黑水’라 불리었다(《新唐書》 권220 流鬼傳; 李健才, 1982a <松花江名稱의演變> 《學習與探索》 1982-2, 135-136쪽).

河]로 진입했다고 파악된다. 을력지가 배를 타고 ‘동류 松花江 → 嫩江 하류 → 洮兒河’로 이어지는 수로를 경유한 다음, 洮兒河에서⁸⁾ 육로로 남하해 시라무렌하를 건너 朝陽和龍에 도착했던 것이다.

〈지도 1〉 만주지역의 주요 지형과 지명⁹⁾



8) 乙力支가 洮兒河에서 下船한 지점은 白城市 남쪽의 洮南 일대로 비정된다(津田左右吉, 1964 앞의 책, 26-29쪽 및 池内宏, 1951 앞의 책, 480쪽).

9) 본문의 논지 전개와 관련된 주요 하천과 산, 현재 지명 등을 중심으로 표기했음을 밝혀둔다.

그럼 을력지가 출발한 물길의 중심지는 어디일까? 이와 관련해 ①-㉑의 速末水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했다. 이 기사의 速末水는 《신당서》 흑수말갈전에는 ‘粟末水’로 표기되어 있는데, “徒太山[太白山] 서쪽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흘러 它漏河로 유입한다”고 한다.¹⁰⁾ 它漏河는 太魯水=太瀾河에서 유래한 명칭인데, 唐代에는 那河[難河]의 별칭으로¹¹⁾ 눈강과 동류 송화강을 지칭했다.¹²⁾ 《신당서》의 ‘粟末水’는 북쪽으로 흘러 동류 송화강과 합류하는 북류 송화강으로 비정되는 것이다.¹³⁾

그런데 ①-㉑의 速末水를 북류 송화강, 물길 중심지를 速末水 유역으로 각기 상정하면, 사료 자체에 모순이 발생한다. 太魯水[洮兒河]에서 東北 방향으로 18일 가면 물길 중심지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북류 송화강은 洮兒河의 동남 방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①-㉑의 速末水를 동류 송화강으로 비정하기도 하지만,¹⁴⁾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모순은 ①-㉑의 “又東北行十八日到其國.” 기사와 그에 이어지는 “國有大水, 闊三里餘, 名速末水.” 기사를 같은 시기로 상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만 후술하듯이 물길은 동류 송화강 중하류에서 흥기해 북류 송화강 방면으로 진출했다. “又東北行十八日到其國.”이 물길이 동류 송화강 중하류에 중심지를 둔 초기 상황이라면, “國有大水, 闊三里餘, 名速末水.”은 북류 송화강 진출 이후의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10) 《新唐書》 권219 흑수말갈전

11) 《新唐書》 권220 流鬼전

12) 李健才, 1982a 앞의 글, 135-136쪽

13) 譚其驥(주편), 1988 앞의 책, 59-60쪽

14) 楊保隆, 1985 앞의 글, 69쪽; 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출판사, 98쪽; 魏存成, 2007 <靺鞨族起源發展的考古學觀察>《史學集刊》2007-4, 63쪽; 范恩實 2010, 75쪽

15) 李健才, 1982a 앞의 글, 135-136쪽. 池內宏도 速末水가 북류 松花江이므로 ‘東北’이 ‘東

북위와 교섭하던 초기에 물길의 중심지는 洮兒河[太魯水]에서 동북 방향의 동류 송화강을¹⁶⁾ 따라 18일 거리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①-㉔의 “初發其國，乘船沂難河西上，至太瀾河”가 물길 중심지를 출발해 동류 송화강 상류 방면을 거슬러 洮兒河로 올라온 행로라면, ①-㉔의 ‘又東北行十八日到其國’은 洮兒河에서 동류 송화강 하류 방면으로 내려간 행로라 할 수 있다. 양자는 방향만 다를 뿐 같은 노선인 것이다.

그런데 ①-㉔에는 을력지가 배를 이용했다고 기술한 반면, ①-㉔에는 교통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①-㉔은 북위 사신이 물길을 방문했던 루트로서 육로를 이용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如洛瓌水[시라무렌하]-太魯水[洮兒河] 구간이 15일 소요된 사실을 고려해 洮兒河에서 육로로 18일 정도 걸렸을 拉林河 유역의 石頭城子나¹⁷⁾ 阿什河 유역의 阿城 일대를¹⁸⁾ 물길의 중심지로 비정했다.

그렇지만 洮兒河 하류와 눈강 하류 일대는 크고 작은 湖沼가 발달해 육로로 통행하기 쉽지 않다. 반면 눈강과 동류 송화강은 하천의 폭이 넓고 유량이 풍부해 수로 교통이 크게 발달했다. 475년 을력지가 북위를 방문할 때뿐 아니라 귀국할 때도 “왔던 길을 따라 배를 타고 그 나라에 도착했다”는 ①-㉔ 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①-㉔의 ‘又東北行十八日到其國’이라는 기사는 洮兒河[太魯水]에서 배를 타고 눈강 하류와 동류 송화강을 따라 내려간 수로상의 거리로 육로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멀었다고

南’의 誤記일까 自問한 다음, “又東北行十八日到其國.”과 “國有大水，闊三里餘，名速末水.”는 다른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므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475년경 물길의 중심지는 북류 松花江의 吉林지역이었지만, 494년에 부여의 본거지인 하얼빈-아성 일대를 점령해 중심지를 옮겼다고 파악했다(池內宏, 1951 앞의 책, 478-509쪽).

16) 津田左右吉은 洮兒河에서 동류 松花江은 동쪽 방향이라며 ‘동북’은 ‘동’의 錯誤라고 보았지만(津田左右吉, 1964 앞의 책, 26-29쪽), 洮兒河에서 동류 松花江은 대체로 동북 방향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다.

17) 津田左右吉, 1964 앞의 책, 26-29쪽.

18) 池內宏, 1951 앞의 책, 478-482쪽.

추정된다.¹⁹⁾

이에 여러 연구자들이 洮兒河에서 수로로 18일 거리에 물길의 중심부가 위치했을 것이라며, 하얼빈보다 하류의 松花江 유역,²⁰⁾ 通河-依蘭 일대,²¹⁾ 張廣才嶺을 지나지 못한 송화강 중류나 張廣才嶺을 지난 小興安嶺山脈 일대의 하류²²⁾ 등으로 비정했다. 이러한 여러 견해 가운데 북위와 교섭하던 초창기 물길의 중심지가 정확히 어느 곳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張廣才嶺보다 동쪽의 동류 송화강 중하류일 가능성이 높는데, 이와 관련해 이 지역의 고고문화 전개양상은 중요한 시사를 준다.

2. 동류 松花江 중하류의 고고문화와 물길의 중심지

최근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동류 송화강 중하류의 고고문화는 송화강 본류를 경계로 남북 두 구역으로 양분되어 전개되었다고 한다.²³⁾ 가령

-
- 19) 津田左右吉도 배로 갔다면 아무리 미개한 족속이라도 ‘三姓(依蘭)’ 동쪽에 도달했을 것이라 했다(津田左右吉, 1964 앞의 책, 33쪽). 다만 김락기는 水路를 이용했다고 보면서도 勿吉의 중심부를 拉林河 유역의 五常으로 비정했다(김락기, 2013 앞의 책, 52-69쪽). 日野開三郎도 북위 사신이 乙力支를 따라 물길에 간 것이라 했으므로 水路를 이용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물길의 중심지를 五常 일대로 비정했다(日野開三郎, 1988 앞의 책, 484-502쪽).
- 20) 楊保隆, 1985 앞의 글, 68-69쪽
- 21) 賈敬顏, 1983 앞의 글, 10쪽; 王綿厚 · 李健才, 1990 앞의 책, 106-110쪽; 손영종, 2000 앞의 책, 98쪽; 李健才, 2001b 앞의 글, 183-186쪽; 송기호, 2008 앞의 글, 229-332쪽.
- 22) 范恩實, 2010 앞의 글, 75쪽
- 23) 동류 松花江 중하류 유역의 고고문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했다.
 張秦湘, 1982 <從最新考古學成就看歷史上的肅慎·挹婁人> 《東北師範大學學報》1982-5
 賈偉明 · 魏國忠, 1989 <論挹婁的考古學文化> 《北方文物》1989-3
 田禾, 2004 <鳳林文化淺析> 《北方文物》2004-1
 趙永軍, 2006 <試論滾兔嶺文化> 《北方文物》2006-1
 張國強 · 霍東峰 · 華陽, 2006 <鳳林文化當議> 《北方文物》2006-2
 魏存成, 2007 <靺鞨族起源發展的考古學觀察> 《史學集刊》2007-4
 黃星坤, 2007 <淺談滾兔嶺文化> 《牡丹江大學學報》2007-5
 張兆國, 2008 <三江平原七星河流域的古代民族> 《黑龍江史志》2008-11

B.C. 2세기~A.D. 3세기 전반의 경우, 송화강 남쪽 지역에서는 滾兔嶺문화와 東興유형이 전개된 반면, 黑龍江 유역을 포함한 북쪽 지역에서는 蜿蜒河-폴체[波爾采] 문화가 전개되었다.²⁴⁾

滾兔嶺문화는 安邦河나²⁵⁾ 安邦河-七星河 상류-倭肯河²⁶⁾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帶角狀把手罐[單把罐]이 가장 특징적 유물로 꼽힌다. 반지하식 竪穴住居址로 구성된 취락과 산성 유적이 많이 발견되는데, 분포범위는 북쪽으로 송화강 본류, 동쪽으로 우수리강, 남쪽으로 穆稜河 등으로 설정된다. 서쪽 경계는 대체로 張廣才嶺으로 상정되지만,²⁷⁾ 牡丹江 중하류

王樂文, 2009 <挹婁·勿吉·靺鞨三族關係的考古學觀察>《民族研究》2009-4

陳曉寧, 2009 <從東康文化看挹婁的社會性質>《黑龍江史志》2009-14

范恩實, 2010 <勿吉興亡史探微>《北方論叢》2010-1

王樂文, 2011 <試論滾兔嶺文化的兩個問題>《北方文物》2011-1

馮恩學, 2011 <奈費爾德類型的文化來源>《北方文物》2011-1

張少珊·蘆會影, 2012 <東北亞視域中的鳳林文化>《北方文物》2012-1

劉曉東, 2013 <挹婁·靺鞨關係的考古學討論>《北方文物》2013-1

王禹浪·劉加明, 2013 <三江平原地域族體考古文化研究綜述>《黑龍江民族叢刊》2013-2

喬梁, 2014 <關於靺鞨族源的考古學觀察與思考>《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2014-2

劉曉東, 2014 《靺鞨文化的考古學研究》吉林大學 박사학위논문

王禹浪·王俊錚, 2015b <近百年來國內外勿吉研究綜述>《哈爾濱學院學報》2015-11

張偉·田禾·趙永軍, 2016 <滾兔嶺文化與鳳林文化關係當議>《北方文物》2016-4

강인옥, 2009 <말갈문화의 형성과 2-4세기 읍루·선비·부여계 문화의 관계>《高句麗渤海研究》33

이종수, 2011 <三江平原地域 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 - 挹婁·勿吉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고구려발해연구》41

강인옥, 2015 <三江平原 滾兔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高句麗渤海研究》52

유은식, 2018 <고고학자료로 본 옥저와 읍루>《한국상고사학보》100

24) 王樂文, 2009 앞의 글; 劉曉東, 2013 앞의 글; 王禹浪·王俊錚, 2015b 앞의 글

25) 王禹浪·王俊錚, 2015b 앞의 글, 8쪽

26) 趙永軍, 2006 앞의 글, 17쪽; 黃星坤, 2007 앞의 글, 6쪽; 張偉·田禾·趙永軍, 2016 앞의 글, 28쪽

27) 趙永軍, 2006 앞의 글, 17쪽; 黃星坤, 2007 앞의 글, 6쪽; 賈偉明·魏國忠, 1989 앞의 글, 27쪽

에 별도로 東興유형을 설정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東興유형은 滾
兔嶺문화의 지방유형²⁸⁾ 또는 團結문화와 滾兔嶺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
다고²⁹⁾ 상정된다.

蜿蜒河-폴체 문화는 黑龍江 남쪽의 蜿蜒河문화와 러시아 경내인 黑龍
江 북쪽의 폴체문화를 합친 명칭인데, 喇叭口球腹罐[鼓腹罐]이 가장 특징
적 유물로 꼽힌다. 蜿蜒河-폴체 문화는 滾兔嶺문화와 공통점도 있지만, 대
표적인 토기가 다른 데서 보듯이 차이점도 많다. 이에 공통점에 주목해 양
자 모두 1-3세기의 挹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지만,³⁰⁾ 滾兔嶺문화[東興
유형 포함]나³¹⁾ 蜿蜒河-폴체 문화³²⁾ 가운데 어느 하나만 읍루로 상정하
기도 한다.³³⁾

한편 동류 송화강 남쪽지역에서는 3세기 후반 이후 七星河 유역을 중심
으로 鳳林문화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鳳林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

28) 王樂文, 2009 앞의 글, 70-73쪽

29) 劉曉東, 2013 앞의 글, 34-35쪽

30) 賈偉明·魏國忠, 1989 앞의 글, 26-28쪽; 趙永軍, 2006 앞의 글, 22쪽; 黃星坤, 2007 앞
의 글, 6-7쪽. ; 이종수, 2011 앞의 글, 25-28쪽; 유은식, 2018 앞의 글, 98-101쪽. 다만
賈偉明·魏國忠은 고고학적으로는 滾兔嶺문화와 蜿蜒河-폴체 문화가 모두 읍루에 해
당하지만, 문헌의 읍루에 해당하는 것은 滾兔嶺文化라고 보았다. 유은식은 위진대의
읍루는 폴체문화 3기에 해당한다고 파악했다(유은식, 2018 앞의 글, 101-103쪽).

31) 王樂文, 2009 앞의 글, 75쪽; 王樂文, 2011 앞의 글, 28-31쪽; 王禹浪·劉加明, 2013 앞의
글, 86쪽; 王禹浪·王俊錚, 2015b 앞의 글, 8쪽. 王樂文은 蜿蜒河-폴체 문화는 고고학적
으로 읍루라 보기 어렵지만, 문헌에서 읍루의 북쪽 경계를 알 수 없다 했으므로 문헌
상의 읍루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다.

32) 張泰湘, 1982 앞의 글, 27-29쪽; 강인옥, 2009 앞의 글, 18-34쪽; 강인옥, 2015 앞의 글,
121-135쪽. 劉曉東, 2013 앞의 글, 34-35쪽. 다만 劉曉東은 문헌사료의 挹婁와 가장 부
합하는 것은 蜿蜒河-폴체 문화이지만, 滾兔嶺문화와 東興유형도 읍루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33) 牧丹江 중상류의 東康文化는 俎豆[豆類 토기]가 발견된다는 점을 근거로 대체로 挹婁
에서 제외하거나(王樂文, 2009 앞의 글, 75쪽; 劉曉東, 2013 앞의 글, 34-35쪽) 團結文
化 계통으로 분류하는데(賈偉明·魏國忠, 1989 앞의 글, 27쪽), 東康文化를 挹婁로 상
정하기도 한다(陳曉寧, 2009 앞의 글, 109-110쪽).

수의 성곽을 축조한 것인데, 1998년에 조사한 유적 426곳 가운데 성곽이 113곳에 달했다.³⁴⁾ 鳳林문화가 확인된 초기에는 滾琿嶺문화와의 계승관계를 강조했지만,³⁵⁾ 점차 양자의 계승관계를 인정하면서도 團結문화의 영향³⁶⁾ 또는 團結문화와 蜿蜒河-폴체문화 요소를³⁷⁾ 강조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연해주의 올가문화 담당자들이 滾琿嶺 문화지구로 침입해 구축한 정복문화로 보기도 한다.³⁸⁾

5세기[南北朝] 이후 송화강 북쪽 지역에서는 蜿蜒河-폴체 문화가 同仁1기 문화로³⁹⁾ 전환되었다. 同仁1기 문화는 蜿蜒河-폴체 문화를 계승하였는데, 특징적 유물도 종전의 喇叭口球腹罐을 이은 盤口鼓腹罐을 비롯해 深腹罐과 筒形罐 등으로 꼽힌다.⁴⁰⁾ 분포범위도 크게 확장되어 서쪽으로 하얼빈-九台, 남쪽으로 綏芬河-敦化-吉林 일대나⁴¹⁾ 백두산에⁴²⁾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牡丹江 중하류에서는 東康유형과 유사한 河口遺存이 출현했다가,⁴³⁾ 남북조시기에 同仁1기 문화와 유사한 河口4기-振興4기 유형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⁴⁴⁾

34) 王禹浪·王俊錚, 2015b 앞의 글, 8쪽

35) 田禾, 2004 앞의 글, 30쪽; 趙永軍, 2006 앞의 글, 22쪽; 張偉·田禾·趙永軍, 2016 앞의 글, 29-30쪽

36) 魏存成, 2007 앞의 글, 64쪽; 王樂文, 2009 앞의 글, 71-72쪽. 團結문화와 함께 高句麗 문화의 영향도 받았다고 보기도 한다(張國強·霍東峰·華陽, 2006 앞의 글, 18쪽).

37) 劉曉東, 2013 앞의 글, 36-37쪽

38) 張偉·田禾·趙永軍, 2016 앞의 글, 30-33쪽

39) 同仁1기 문화에 상응하는 러시아 경내 문화는 나이켈드[奈伊費爾德] 문화이다(王樂文, 2009 앞의 글, 73쪽).

40) 王樂文, 2009 앞의 글, 73-74쪽; 馮恩學, 2011 앞의 글, 32-36쪽; 劉曉東, 2013 앞의 글, 36-37쪽; 王禹浪·王俊錚, 2015b 앞의 글, 9쪽

41) 張泰湘, 1982 앞의 글, 28쪽

42) 劉曉東, 2013 앞의 글, 36-37쪽

43) 河口遺存은 남쪽의 東康유형이 북쪽으로 확장해 종전의 東興유형을 파괴하며 생겨났다고 파악해 挹婁-勿吉 계통에서 제외하기도 한다(劉曉東, 2013 앞의 글, 36-37쪽).

이에 비해 鳳林문화는 분포범위가 七星河 유역에 국한될 뿐 아니라, 5세기 초반[魏晉 시기]⁴⁵⁾ 또는 6세기 중반[南北朝 시기]을⁴⁶⁾ 하한으로 단절되었다. 송화강 북쪽 지구의 同仁1기 문화가 점차 송화강 중하류 전역으로 확산된 반면,⁴⁷⁾ 鳳林문화는 소멸되었던 것이다.⁴⁸⁾ 이에 따라 토기문화도 남쪽 지구의 대표 유물이었던 帶角狀把手罐[單把罐]은 소멸하고, 남북 모두 흔히 靺鞨罐이라 불리는 盤口鼓腹罐, 深腹罐, 筒形罐 등으로 통일되었다.⁴⁹⁾

이로 인해 勿吉-靺鞨의 실체와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가령 鳳林문화를 읍루에서 물길로 이어지는 문화로 파악하고⁵⁰⁾ 鳳林城址를 읍루 · 물길의 王城 유적으로 비정하기도 하지만,⁵¹⁾ 鳳林문화와 함께 同仁1기 문화를 물길-말갈에 포함시키기도 한다.⁵²⁾ 또한 鳳林문화의 단절 현상에 주목해 鳳林문화는 물길-말갈 발전의 초기 단계, 同仁1기 문화는 장기간 존속한 물길-말갈 문화로 상정하기도 한다.⁵³⁾ 물길 문화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는 것인데, 鳳林문화는 494년 부여를 몰아내기 이전의 초기 물

44) 王樂文, 2009 앞의 글, 72-73쪽

45) 王樂文, 2009 앞의 글, 71-72쪽. 鳳林城址의 연대를 215-450년으로 비정하기도 한다(黃星坤, 2007 앞의 글, 8쪽).

46) 喬梁, 2014 앞의 글, 134쪽; 張偉 · 田禾 · 趙永軍, 2016 앞의 글, 29쪽

47) 張泰湘, 1982 앞의 글, 28-29쪽

48) 范恩實, 2010 앞의 글, 77쪽; 劉曉東, 2013 앞의 글, 36-37쪽

49) 王樂文, 2009 앞의 글, 75쪽

50) 滾琿嶺-鳳林문화는 挹婁-勿吉 문화, 蜿蜒河-同仁1기 문화는 靺鞨-女眞 문화로 각각 구분하여 파악한다(王禹浪 · 劉加明, 2013 앞의 글, 86-88쪽).

51) 黃星坤, 2007 앞의 글, 7-8쪽; 張兆國, 2008 앞의 글, 22쪽; 張少珊 · 蘆會影, 2012 앞의 글, 27-29쪽

52) 魏存成, 2007 앞의 글, 62-65쪽; 이종수, 2011 앞의 글, 28-31쪽. 王禹浪 · 王俊錚, 2015b 앞의 글, 10쪽. 다만 이종수는 鳳林문화는 속말말갈 계통, 同仁1기 문화는 흑수말갈 계통으로 파악한다.

53) 劉曉東, 2013 앞의 글, 36-37쪽

길에 해당하며, 이들은 북방에서 남하한 또 다른 물길 곧 同仁1기 문화 담당자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⁵⁴⁾

특히 최근에는 鳳林 문화의 존속기간은 짧았던 반면 牧丹江, 동류 송화강 상류, 북류 송화강의 물길-말갈 유적이 모두 이주민에 의해 조성된 사실에 주목해, 鳳林 문화는 물길-말갈 문화로 볼 수 없고, 蜿蜒河-폴체 문화를 물길-말갈 문화의 來源으로 상정하기도 한다.⁵⁵⁾ 또한 同仁1기 문화 담당자들이 5세기 전반에 동류 송화강 상류 방면으로 남하를 개시했고, 豆莫婁와의 충돌과정에서 동류 송화강 중류에 사회통합 역량을 가진 집단이 출현했는데, 이들이 475년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물길이라고 보기도 한다.⁵⁶⁾

이상을 종합하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첫째 물길-말갈의 초기 단계 문화는 鳳林문화였는데, 점차 同仁1기 문화로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滾琿嶺-鳳林 문화는 물길-말갈문화와 직접 관련이 없고, 송화강 북쪽의 蜿蜒河-폴체 문화나 同仁1기 문화에서 물길-말갈이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경우라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鳳林문화의 하한 및 同仁1기 문화의 확산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鳳林문화의 하한을 6세기 중반[남북조시기]으로 상정한다면,⁵⁷⁾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鳳林문화의 하한과 同仁1기 문화의 확산 시기를 5세기 전반[魏晉代]으로 상정한다면,⁵⁸⁾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물

54) 王樂文, 2009 앞의 글, 76-77쪽

55) 喬梁, 2014 앞의 글, 131-136쪽. 張泰湘도 일찍이 滾琿嶺문화나 鳳林문화가 확인되기 이전에 蜿蜒河-폴체 문화와 同仁1기 문화를 挹婁-勿吉-靺鞨에 해당한다고 파악한 바 있다(張泰湘, 1982 앞의 글, 27-28쪽). 최근 강인욱도 張泰湘과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강인욱, 2009 앞의 글, 18-33쪽; 2015 앞의 글, 121-139쪽).

56) 范恩實, 2010 앞의 글, 75-77쪽

57) 喬梁, 2014 앞의 글, 134쪽; 張偉·田禾·趙永軍, 2016 앞의 글, 29쪽

58) 張國強·霍東峰·華陽, 2006 앞의 글, 16쪽; 王樂文, 2009 앞의 글, 71-72쪽; 范恩實,

길은 ‘築城穴居’했다고 하는데,⁵⁹⁾ 滾琕嶺-鳳林문화에서는 성곽유적이 다 수 확인되지만,⁶⁰⁾ 蜿蜒河-同仁1기 문화에서는 성곽유적이 많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초기 단계의 물길 문화는 송화강 남쪽의 鳳林 문화이며, 그 뒤 북쪽의 同仁1기 문화로 교체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북류 송화강 유역에서 확인된 물길-말갈 유적인 榆樹 老河深 유적 상층, 永吉 大海猛 유적 상층(제3기), 永吉 查里巴 유적 등에서는 盤口 鼓腹罐, 深腹罐, 筒形罐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토기는 鳳林문화가 아니라 同仁1기 문화 계통에 속한다.⁶¹⁾ 북류 송화강 일대로 진출한 물길의 실체는 同仁1기 문화 계통의 주민집단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길이 ‘築城穴居’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5세기 후반 물길의 중심지는 鳳林문화의 분포구역인 七星河 유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 반면 5세기 후반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물길과 북류 송화강 일대에 물길-말갈 계통의 유적을 남긴 주민집단이 동일한 실체라면, 물길의 중심지는 同仁1기 문화나 河口4기-振興4기 유형의 유적이 분포하는 張廣才嶺 동쪽의 동류 송화강 중하류 일대나 牧丹江 중하류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 어느

2010 앞의 글, 75-77쪽; 劉曉東, 2014 앞의 논문, 160-161쪽. 다만 王樂文은 鳳林문화의 하한을 魏晉代로 설정하면서도 鳳林문화는 494년 부여를 몰아내기 이전인 초기 勿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王樂文, 2009 앞의 글, 76-77쪽).

59) 《魏書》 권100 열전88 勿吉傳

60) 魏存成, 2007 앞의 글, 64쪽; 王樂文, 2009 앞의 글, 76-77쪽, 이종수, 2011 앞의 글, 30-31쪽

61) 송기호, 2003 <粟末靺鞨의 원류와 부여계 집단문제>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2011 앞의 책, 84-86쪽); 劉曉東, 2014 앞의 논문, 86-116쪽; 喬梁, 2014 앞의 글, 131-136쪽. 많은 중국학자들이 이들 유적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다(王禹浪·王俊錡, 2015b 앞의 글, 10쪽). 한국학자로는 송기호, 1998 <육정산 고분군의 성격과 발해 건국집단> 《汕耘史學》 8 및 김현숙, 2005 <말갈에 대한 지배방식> 《고구려의 영역지배장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등에서 상세하게 분석했다. 이들 유적에 대해서는 勿吉-靺鞨의 南下에 따라 북류 松花江 유역에 多種族 社會가 형성되는 양상을 다룬 後稿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경우이든 5세기 후반 물길의 중심지는 張廣才嶺보다 동쪽에 위치했다고 상정된다.⁶²⁾ 이는 물길이 洮兒河에서 水路로 18일 거리의 동류 송화강 중하류에 위치했다는 앞의 검토 결과와 부합한다.

III. 高句麗와 勿吉의 충돌과 각축전의 전개

1. 대북위 교섭로에 나타난 고구려와 물길의 충돌 양상

이상과 같이 5세기 후반 물길의 중심지는 동류 송화강 중하류 일대로 비정되는데, 이는 5세기 후반 고구려와 물길의 충돌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를 준다.

②-㉠ 지난 延興 연간에 사신 乙力支를 보내 朝獻했다. (중략) 스스로 말하기를 “그 나라가 앞서 高句麗 10落을 격파했고, 몰래 백제와 함께 모의해 水道를 따라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취하려는데, 乙力支를 보내 大國을 받들어 그 可否를 청합니다.”라고 했다. (《魏書》 권100 勿吉國傳)

②-㉡ 3년 2월, 扶餘王과 처자가 나라를 들어 來降했다. (《三國史記》 권19 文咨明王 3년조)

②-㉢ 正始 연간에 世宗이 東堂에서 그 사신 芮悉弗을 접견했는데, 예실 불이 나아가 “고구려는 하늘과 같은 성심으로 여러 대에 걸쳐 정성을 다해 땅에서 나는 土毛를 조공에 빠뜨린 바가 없습니다. 다만 黃金은 부여에서 나고, 珂는 涉羅에서 생산됩니다. 지금 夫餘는 勿吉에게 쫓겨났고, 涉羅는 백제에게 병합되었는데, 고구려 왕 臣 雲이 멸망한 나라를 계승하는 의리를 생각해 모두 (고구려) 경내로 옮겼습니다. 두 물품이 王府에 오르지 못한 까닭은 실로 두 적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魏書》 권100 高句麗전)

62) 魏存成, 2007 앞의 글, 66쪽

사료 ②-㉑의 ‘延興中’은 延興5년(475년) 10월, ‘太和初’는 太和2년(478년) 8월에 해당한다.⁶³⁾ 물길이가 475년 이전에 고구려 10락을 격파한 다음, 475년 10월 乙力支를 북위에 파견해 “백제와 모의하여 水道를 따라 고구려를 공취하겠다.”며 북위의 의향을 물었다는 것이다. ②-㉒·㉓의 부여는 후술하듯이 4세기 전반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중심지를 옮긴 後扶餘를 지칭한다. ②-㉔의 “지금 부여가 물길에게 쫓겨났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후부여는 勿吉의 공격[압박] 때문에 494년 고구려에 투항했다.

상기 사료를 종합하면, 물길이가 475년 이전에 고구려 10락을 격파했고, 494년 이후 후부여 지역을 장악했다고 파악된다. 그러므로 물길이가 격파한 고구려 10락은 물길의 중심부에서 후부여 방면으로 나아가는 루트에 위치했다고 추정된다. 물길의 중심부와 후부여의 위치를 어떻게 비정하느냐에 따라 물길이가 격파한 고구려 10락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다.⁶⁴⁾

종래 津田左右吉은 물길의 중심지를 동류 송화강 지류인 拉林河 유역의 石頭城子, 후부여를 북류 송화강 상류로 비정한 다음, 물길이가 475년경에 북류 송화강 유역 대부분을 장악했다고 보았다.⁶⁵⁾ 池內宏은 물길의 초기 중심지를 吉林지역으로 상정한 다음, 475년 이전에 물길이가 북류 송화강 상류인 輝發河 유역의 고구려 10락을 공격했다고 상정했다.⁶⁶⁾ 또한 日野開三郎은 물길의 중심지를 拉林河 유역의 五常, 후부여의 위치를 農安 일대

63) 《冊府元龜》 권969 外臣部 朝貢2 및 《魏書》 권7 고조기 太和2년 8월조

64) 勿吉이 격파한 고구려 10락을 瑯春-延吉 일대의 북옥저로 비정하거나(楊保隆, 1985 앞의 글, 70-71쪽) 勿吉이 286-486년에는 주로 豆滿江-綏芬河 등 북옥저 방면으로 진출했다고 보기도 한다(梁玉多, 2012 <簡析勿吉의對外擴張> 《北方文物》 2012-1, 45-48쪽).

65) 津田左右吉, 1964 앞의 책, 26-30쪽.

66) 池內宏, 1951 앞의 책, 506-509쪽. 다만 池內宏은 부여의 본거지를 阿城 일대로 상정한 다음, 물길이가 494년 부여 본거지를 점령하고 중심지도 阿城 일대로 옮겨졌다고 보았다. ①-㉑의 ‘又東北行十八日到其國’도 494년 이후 北魏 사신이 육로를 통해 물길의 새로운 중심지인 阿城 일대를 방문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로 비정한 다음, 물길이 공략한 고구려 10락을 북류 송화강 하류에서 農安 일대로 비정했다.⁶⁷⁾

초창기 연구자들은 물길의 중심지를 동류 송화강 상류나 북류 송화강의吉林지역으로 비정한 다음, 물길이 475년 이전에 북류 송화강 유역의 대부분을 영유하거나 輝發河 유역까지 진공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5세기 후반 물길의 중심지는 북류 송화강에서 멀리 떨어진 동류 송화강의 중하류 일대로 비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길이 494년 후부여를 장악하기 이전에 북류 송화강 유역을 대부분 점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해 475년 북위에 파견되었던 을력지의 사행로와 언설은 중요한 시사를 준다. 전술했듯이 을력지는 475년 동류 송화강 상류를 거슬러 洮兒河[太瀾河]에 도착한 다음, 육로로 남하해 시라무렌하[洛孤水]를 건너 朝陽[和龍]에 도착했다. 이때 을력지는 거란의 거주구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契丹의 서쪽 경계를 따라’ 화룡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5세기에 거란은 庫莫奚와 함께 화룡의 북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고막해는 388년에 시라무렌하로 비정되는 弱洛水 남쪽에 거주했고, 500년 경에는 努魯兒虎山脈 서북쪽으로 비정되는 ‘塞表’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⁶⁸⁾ 또한 唐代에는 土護眞水에 거주했는데,⁶⁹⁾ 토호진수는 시라무렌하 남쪽 지류인 老哈河로 비정된다.⁷⁰⁾ 고막해의 분포구역은 努魯兒虎山脈과 시라무렌하 사이의 老哈河 일대로 비정되는 것이다.⁷¹⁾

거란은 고막해의 동쪽에 위치했는데,⁷²⁾ 老哈河 동쪽의 努魯兒虎山脈을

67) 日野開三郎, 1988 앞의 책, 460-489쪽. 다만 日野開三郎은 물길이 공략한 10락은 실제로는 부여의 영역인데, 당시 부여가 고구려의 속국으로 고구려가 구원했기 때문에 고구려 10락으로 기재했다고 보았다.

68) 《魏書》 권100 열전88 庫莫奚國전; 孫進己·王綿厚, 1989 앞의 책, 151쪽

69) 《新唐書》 권219 열전144 奚전

70) 白鳥庫吉, 1970 앞의 책, 236-237쪽

71) 張博泉·蘇金源·董玉英, 1983 《東北歷代疆域史》長春：吉林人民出版社, 71쪽

경계로 고막해와 접하며 老哈河 하류와 시라무렌하 일대에 분포했다.⁷³⁾ 따라서 475년 을력지는 시라무렌하를 건넌 다음, 고막해와 경계를 이루는 거란 서쪽의 努魯兒虎山脈을 따라 남하했다고 파악된다. 을력지가 평탄한 루트를 선택하지 못하고, 험준한 산간 루트를 경유했던 것이다.

사료 ①-⑦에 따르면 和龍[朝陽]-如洛瓌水[시라무렌하] 구간은 20일 이상 소요된 반면, 如洛瓌水-太魯水[洮兒河] 구간은 15일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도 1>에서 보듯이 朝陽-시라무렌하 구간은 시라무렌하-洮兒河 구간보다 거리가 더 짧다. 朝陽-시라무렌하의 거리가 시라무렌하-洮兒河보다 짧았음에도 5일 이상 더 소요된 이유는 무엇일까?

①-⑦에는 화룡에서 여락괴수[시라무렌하]로 나아갈 때 善玉山과 祁黎山 등을 경유했다고 나오는데, 선옥산은 朝陽 서북쪽의 大靑山, 기려산은 努魯兒虎山脈에 위치한 산으로⁷⁴⁾ 비정된다.⁷⁵⁾ 화룡에서 여락괴수로 나아갈 때 평탄한 루트가 아니라 大靑山에서 努魯兒虎山脈으로 이어지는 산간 루트를 경유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화룡-여락괴수 구간의 거리가 여락괴수-태로수 구간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5일 이상 더 소요되었던 것이다.

①-⑦의 ‘화룡 → 선옥산 → 기려산 → 여락괴수’ 루트는 을력지가 거란 서쪽 경계의 努魯兒虎山脈을 따라 화룡으로 나아갔던 루트를 역행한 것이다. 이로 보아 ①-⑦의 북위 · 물길 교섭로는 을력지 등 물길 사신의 귀환 루트를 따라 물길을 방문했던 북위 사신의 기록으로 추정된다.⁷⁶⁾ 그럼 물

72) 《魏書》 권100 열전88 契丹國전

73) 白鳥庫吉, 1970 앞의 책, 241-243쪽; 孫進己 · 王綿厚, 1989 앞의 책, 149-151쪽. 이계성은 거란과 고막해가 시라무렌하 하류의 開魯와 朝陽을 잇는 선을 경계로 동서로 분포했다고 파악했다(이계성, 1996 《고대 동몽고사 연구》 법인문화사, 72-90쪽)

74) 唐 태종이 奚 지역에 설치한 饒樂都督府에 ‘祁黎州’가 나오는데, 祁黎山이 庫莫奚와 연관된 山임을 시사한다(《新唐書》 권219 열전144 奚전).

75) 賈敬顏, 1993 앞의 책, 15-16쪽; 김락기, 2013 앞의 책, 78-79쪽

76) 日野開三郎, 1988 앞의 책, 484쪽. 을력지의 귀국 모습을 묘사한 ①-⑦의 “從其來道,

길과 북위는 왜 거란 서쪽 경계의 산간 루트를 통해 교섭했을까?

물길은 475년에 북위와 처음 교섭했을 뿐 아니라, 이때까지 거란과 교류한 적이 없다. 물길이 교류한 적도 없는 거란의 거주구역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란의 거주구역을 통과하기 힘들었다면, 북위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사료 ①-⑦은 북위 사신의 기록으로 추정되는데, 북위가 거란의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물길 사신과 함께 努魯兒虎山脈의 산간 루트를 경유했던 것이다.

이로 보아 물길과 북위가 거란의 거주구역을 피해 교섭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고구려가 460-470년대에 거란이나 고막해 등과 동시에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주목된다.⁷⁷⁾ 특히 467-470년 및 476-479년에는 거의 매년 거란이나 고막해와 함께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는 고구려가 거란이나 고막해와 긴밀하게 교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길과 북위가 거란이나 고막해의 거주구역을 통과해 교섭을 전개했다면, 곧바로 고구려에 알려졌을 것이다. “고구려의 10락을

取得本船，汎達其國。”은 북위 사신의 전언으로 보이는데, 북위 사신이 울력지를 따라 물길을 방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77) 《冊府元龜》 권969 外臣部 朝貢2에서 관련 사례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皇興元年(467) 二月 高麗·庫莫奚·具伏弗·鬱羽陵·日連·匹黎爾·于闐諸國.

皇興二年(468) 四月 高麗·庫莫奚·契丹·具伏弗·鬱羽陵·日連·匹黎爾·叱六手·悉萬斤·阿大阿·羽真侯·于闐·波斯等國.

皇興三年(469) 二月 蠕蠕·高麗·庫莫奚·契丹國.

皇興四年(470) 二月 高麗·庫莫奚·契丹各遣使朝貢.

延興三年(473) 二月 高麗·契丹國 八月高麗·庫莫奚國.

承明元年(476) 二月 蠕蠕·高麗·庫莫奚·波斯諸國 七月 高麗·庫莫奚 九月 高麗·庫莫奚·契丹·宕昌·悉萬斤.

太和元年(477) 二月 高麗·契丹·庫莫奚國.

太和三年(479) 九月 高麗·吐谷渾國·地豆于·契丹·庫莫奚·龜茲諸國各遣使朝獻.

격과했다”는 을력지의 언설에서 보듯이 당시 고구려와 물길은 상쟁 중이었다. 고구려가 물길과 북위의 교섭을 인지한다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했을 것이다.⁷⁸⁾ 이에 물길과 북위는 양자의 교섭 사실이 거란이나 고막해를 통해 고구려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努魯兒虎山脈 산간 루트를 통해 교섭을 전개했다고 파악된다.

을력지가 475년 배를 타고 동류 송화강과 눈강 하류를 거슬러 洮兒河[太瀾河]까지 나아간 이유도 이 때문이다. 遼代의 경우, 西遼河 상류의 上京에서 동류 송화강 하류의 五國部로 나아갈 때 西遼河 지류인 新開河를 따라 내려온 다음, 松遼分水嶺 일대(梨樹·懷德·農安)를 가로질러 송화강 하류로 나아갔다.⁷⁹⁾ 북위의 화릉[조양]에서 동류 송화강 중하류에 이르는 최단 코스는 시라무렌하나 西遼河를 건넌 다음 松遼分水嶺을 가로질러 伊通河 유역의 農安 일대를 경유하는 루트인 것이다.⁸⁰⁾

그러므로 물길이 이 루트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을력지도 동류 송화강 상류와 북류 송화강 하류를 거슬러 農安 일대까지 온 다음, 西遼河 방면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을력지는 洮兒河[太瀾河]까지 나아간 다음, 육로로 시라무렌하 방면으로 남하했다. 475년경 물길은 북류 송화강 하류의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물길은 상쟁 중인 고구려의 감시망을 피해 洮兒河까지 나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⁸¹⁾

78) 고구려는 472년 직후 백제 사신과 함께 고구려 경내를 경유하려던 북위 사절의 통행을 거부한 바 있다(《위서》 권100 열전88 백제전).

79) 項春松, 1991 <遼國交通驛道及驛館述略>《內蒙古東部地區考古學文化研究文集》 海洋出版社

80) 日野開三郎, 1988 앞의 책, 490-492쪽

81) 津田左右吉, 1964 앞의 책, 29쪽 및 송기호, 2008 앞의 글, 230쪽. 日野開三郎은 고구려가 부여로 하여금 물길의 교섭로를 방해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회로를 이용했다고 보았다(日野開三郎, 1988 앞의 책, 490-492쪽).

2. 後扶餘의 멸망과 복류 송화강 하류를 둘러싼 각축전

물길이 475년 이전에 고구려 10락을 격파했지만, 아직 복류 송화강 하류로 진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길이 복류 송화강 유역을 대부분 장악했다거나 輝發河까지 진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부여를 둘러싼 고구려와 물길의 각축전도 이를 잘 보여준다.

부여의 본거지는 鹿山이었는데, 4세기 전반 고구려의⁸²⁾ 공격을 받아 그 중심지를 서쪽으로 前燕 가까이 옮겼다.⁸³⁾ 사료 ②의 부여는 “서쪽으로 전연 가까이 옮긴” 후부여인데, 457년에는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다.⁸⁴⁾ 다만 “고구려가 부여의 황금을 북위에 조공했다”는 ②-㉔ 기사에서 보듯이 5세기에 후부여는 고구려에 강하게 예속된 상태였다.

전기 부여의 중심지인 鹿山은 복류 송화강 중류의 吉林地域으로 비정된다.⁸⁵⁾ 후부여의 중심지에 대해서는 渾江유역,⁸⁶⁾ 함흥지역,⁸⁷⁾ 昌圖 일대,⁸⁸⁾ 西豊 城子山山城,⁸⁹⁾ 農安 일대⁹⁰⁾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문헌사

82) 《資治通鑑》 권97 晉紀19 穆帝 永和 2년 정월조의 원문에는 ‘百濟’로 나오지만, ‘高句麗’의 오키로 파악된다(池內宏, 1951 앞의 책, 463-465쪽; 李丙壽, 1975 <夫餘考>《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221-222쪽; 金毓紘, 1976 <夫餘勿吉等東北部族>《東北通史》 洪氏出版社, 258-259쪽).

83) 《晉書》 권97 東夷傳 扶餘傳 및 《資治通鑑》 권97 晉紀19 穆帝 永和 2년 정월조

84) 《위서》 권5 고종기 태안 3년 12월조

85) 李健才, 1982b <扶餘的疆域和王城>《社會科學戰線》 1982-4; 武國勳, 1983 <扶餘王城新考>《黑龍江文物叢刊》 1983-4; 盧泰敦, 1989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國史館論叢》 3(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86) 津田左右吉, 1964 앞의 책, 37-42쪽

87) 池內宏, 1941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6: 1960《滿鮮史研究》(上世 제2책) 吉川弘文館, 354-376쪽

88) 金毓紘, 1976 앞의 책, 259쪽

89) 王綿厚, 1990 <東北古代夫餘部の興衰及王城變遷>《遼海文物學刊》 1990-2

90) 松井等, 1913 <隋唐二朝高句麗遠征の地理>《滿洲歷史地理》(一) 南滿洲鐵道株式會社, 366쪽; 日野開三郎, 1946a <夫餘國考>《史淵》 34(1988 앞의 책, 20-24쪽); 李健

료를 통해 개략적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발해의 부여부는 고구려 舊地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⁹¹⁾ 遼代의 龍州 黃龍府⁹²⁾ 農安 서남쪽 일대로⁹³⁾ 비정된다. 고구려 후기 부여성 곧 후부여의 중심지는 북류 송화강 하류의 지류인 伊通河 유역의 農安 일대로 비정되는 것이다.⁹⁴⁾

전술했듯이 물길은 475년 “백제와 함께 水道를 통해 고구려를 공격하겠다”고 공언했다.⁹⁵⁾ 물길의 중심지가 동류 송화강 중하류 일대임을 고려하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이용하겠다는 수로는 동류 송화강 상류에서 북류 송화강으로 이어지는 수로로 파악된다.⁹⁶⁾ 물길은 수로를 이용하여 동류 송화강 상류를 경유해 북류 송화강 하류 방면으로 진출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475년경 북류 송화강 하류의 農安 일대에는 고구려에 강하게 예속된 후부여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길이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를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길은 후부여가 고구려에 투항한

才, 1982b 앞의 글; 노태돈, 1989 앞의 글

- 91) 《三國史記》 지리지4 : “渤海國南海·鴨綠·扶餘·柵城四府, 並是高句麗舊地也.”
- 92) 《遼史》 地理志 東京道 通州와 龍州 黃龍府조; “扶餘國王城 渤海號扶餘城.”
- 93) 遼는 渤海 扶餘府에 龍州 黃龍府를 설치했다가, 발해인 燕頰가 반란을 일으키자 府를 폐지하고 반란에 연루된 발해인을 서남쪽으로 옮겨 通州(지금의 昌圖부근)를 설치하였다. 1013년에 黃龍府를 復置하였는데, 治城은 원위치에서 동북쪽으로 약간 옮겨 지금의 農安에 신축했다. 황룡부의 원위치 곧 고구려 후기의 부여성은 農安 서남쪽으로 비정할 수 있다. 遼 太祖의 사망 기록을 보면 대체로 伊通河와 新開河 사이로 비정된다(日野開三郎, 1951·52 <渤海の扶餘府と契丹の龍州·黃龍府> 《史淵》 49-52: 1991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東北アジア民族史(中)》 三一書房, 423-437쪽 및 盧泰敦, 1989 앞의 글;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철, 496-500쪽).
- 94) 여호규, 2000 <고구려 천리장성의 경로와 축성배경> 《국사관논총》 91, 166-170쪽 참조.
- 95) 물길과 백제의 모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북위에 과전되었던 백제 사신은 475년 북위 사절과 함께 山東半島의 東萊를 출발해 귀국하려다가 풍랑을 만나 북위로 되돌아왔다. 勿吉의 乙力支가 북위를 방문했을 때 백제 사신도 체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때 모의했을 수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료는 없다.
- 96) 송기호, 2003 <粟末靺鞨의 원류와 부여계 집단문제>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문화》서울대학교 출판부, 335-336쪽

494년 이후 비로소 북류 송화강 하류로 진출할 수 있었고, 나아가 북류 송화강 중류의 吉林 방면 진출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⁹⁷⁾

그러므로 물길이 475년 이전에 격파한 ‘고구려 10磔’은 동류 송화강 상류 일대로⁹⁸⁾ 비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 당시 동류 송화강 상류 일대가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5세기 고구려의 영역은 북쪽으로 舊夫餘에 이르렀는데(사료 ③-①), 구부여는 吉林地域에 중심지를 두었던 전기 부여로 비정된다. 고구려는 이곳에 ‘嶺北夫餘守事’를 파견했는데(<牟頭婁墓誌>), 吉林 龍潭山城을 지배거점으로 삼아 이 지역을 다스린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吉林地域 북방의 북류 송화강 하류나 동류 송화강 상류에서는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지역은 전기 부여의 영역에 속했다.⁹⁹⁾ 고구려가 전기 부여의 중심지를 장악한 이후, 후부여가 農安 일대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고구려에 강하게 예속된 상태였다. 또한 후부여를 제외하면 이 지역에서 다른 정치세력은 확인되지 않는다.¹⁰⁰⁾ 고구려가 전기 부여의 중심지로 진출한 다음, 동류 송화강 상류 연안까지 완전히 영역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예속시켜 영향력 아래 두었다고 파악된다.¹⁰¹⁾

97) 勿吉이 張廣才嶺을 넘어 西進했다고 상정해, 475년 이전에 吉林지역의 ‘고구려 10磔’을 격파했고, 그 뒤 더 西進하여 農安일대의 후부여를 점령했다고 보기도 한다(송기호, 2003 앞의 글, 335-336쪽). 그렇지만 동류 松花江 중하류에 중심지를 둔 勿吉은 험준한 張廣才嶺보다 평탄한 동류 松花江 沿邊을 따라 西進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98) 물론 동류 송화강 상류의 지류인 拉林河 유역과 함께 북류 송화강의 하구 일대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99) 《三國志》 권30 魏書 東夷傳 夫餘조; 송호정 2015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69-72쪽.

100) 후술하듯이 豆莫婁도 구부여[북부여]의 후예라고 하는데(《魏書》 권100 두막루 국전; 《新唐書》 권220 流鬼전), 동류 송화강 북쪽의 呼蘭河-小興安嶺山脈 일대로 비정된다.

이에 물길은 동류 송화강 상류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그 연변의 취락을 격파한 다음, 이들이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10落’이라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落’이라는 표현도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落’은 촌락을 뜻하는 ‘聚’보다 규모가 작은 거주집단을 지칭하는데, 성곽이 조영되어 있거나 다수 인구가 集住한 대규모 취락은 ‘國’, ‘城’, ‘都’, ‘邑’ 등으로 표기한다.¹⁰²⁾ ‘고구려 10락’은 소규모 취락을 지칭하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북류 송화강 하류 방면의 農安 일대에는 후부여의 중심지가 있었고, 吉林地域에는 고구려가 龍潭山城 등의 지배거점을 구축한 상태였다. 만약 물길이 475년 이전에 후부여의 중심지나 고구려의 지배거점을 점령했다면, ‘落’이 아니라 ‘國’, ‘城’, ‘都’, ‘邑’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과를 과시했을 것이다.¹⁰³⁾ 물길이 이러한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규모 취락을 뜻하는 ‘落’이라는 한자를 사용했던 것이다.

결국 勿吉이 격파한 ‘고구려 10락’은 고구려에 예속된 동류 송화강 상류 연변의 소규모 취락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물길은 ‘고구려 10락’을 격파하며 동류 송화강 상류로 진출한 다음, 475년 북위와의 교섭을 개시했다. 이와 함께 물길은 동류 송화강 상류에서 북류 송화강 하류로 이어지는 수로를 통해 고구려 방면 진출을 시도했다. 물길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農安 일대의 후부여였을 것이다. 후부여를 점령해야 북류 송화강 중류 방면으로 진격할 교두보를 마련하고, 西遼河 방면으로 나아가는 최단 교통로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1) 노태돈, 1999 앞의 책, 418-420쪽

102) 《史記》 권1 五帝本紀 帝堯 : “一年而所居成聚, 二年成邑, 三年成都”
《古列女傳》 권2 楚老萊妻 : “老萊子乃隨其妻而居之, 民從而家者, 一年成落, 三年成聚.” 斯波義信, 2002 《中國都市史》 東京大學 出版會, 3-6쪽

103) 504년 북위 世宗과 芮悉弗의 대화에서 (후)夫餘와 涉羅를 ‘邑’이라 지칭했다(《魏書》 권100 高句麗傳).

〈표 1〉 물길의 복위 사신 파견 현황

시기	기사 내용	전거
475. 10	延興中, 遣使乙力支朝獻. 延興五年 十月 勿吉國遣使朝獻.	《魏書》 권100 《冊府元龜》 권969
478. 8	太和二年 八月 丁亥, 勿吉國遣使朝獻. 太和初, 又貢馬五百匹.	《魏書》 권7상 《魏書》 권100
485	太和九年, 復遣使侯尼支朝獻.	《魏書》 권100
486. 12	太和十年 十有二月 癸未, 勿吉國遣使朝貢. 明年 復入貢.	《魏書》 권7하 《魏書》 권100
488. 8	太和十有二年 八月 甲子, 勿吉國貢楛矢·石弩. 太和十二年, 勿吉復遣使貢楛矢方物於京師.	《魏書》 권7하 《魏書》 권100
493. 1	太和十七年 春正月 乙亥, 勿吉國遣使朝獻. 十七年, 又遣使人婆非等五百餘人朝獻.	《魏書》 권7하 《魏書》 권100
503. 8	景明四年 八月 庚子, 勿吉國貢楛矢. 景明四年, 復遣使侯力歸等朝貢.	《魏書》 권8 《魏書》 권100
507. 2	正始四年 春二月 己未, 勿吉國貢楛矢.	《魏書》 권8
508. 2	永平元年 二月 辛未, 勿吉·南天竺國並遣使朝獻.	《魏書》 권8
509. 8	永平二年 八月 戊申, 高昌·勿吉·庫莫奚諸國並遣使朝獻.	《魏書》 권8
510. 8	永平三年 八月 己卯, 勿吉國遣使朝貢.	《魏書》 권8
511. 8	永平四年 八月 癸巳, 勿吉國獻楛矢.	《魏書》 권8
512. 8	延昌元年 八月 丁亥, 勿吉國貢楛矢.	《魏書》 권8
513. 9	延昌二年 九月 是月, 勿吉·吐谷渾·鄧至國並遣使朝貢.	《魏書》 권8
514. 7	延昌三年 秋七月 丙子, 勿吉國遣使朝貢.	《魏書》 권8
514. 9	延昌三年 九月, 吐谷渾·契丹·勿吉諸國並遣使朝貢.	《魏書》 권8
515. 1	延昌四年 春正月 己巳, 勿吉·達槃·地豆和·尼步伽·拔但· 佐越費實等諸國遣使朝獻.	《魏書》 권8
515. 10	延昌四年 冬十月 庚午朔, 勿吉國貢楛矢.	《魏書》 권9
517. 1	熙平二年 春正月 戊子, 勿吉國遣使朝貢.	《魏書》 권9
517. 10	熙平二年 冬十月 丁酉, 勿吉國 貢楛矢.	《魏書》 권9
518. 2	神龜元年 二月戊申, 嚙達·高麗·勿吉·吐谷渾·宕昌·疏勒· 久末陀·末久半諸國, 並遣使朝獻.	《魏書》 권9
518. 8	神龜元年 秋八月 甲子, 勿吉國遣使朝貢.	《魏書》 권9

시기	기사 내용	전거
519. 6	神龜二年 六月, 高昌國勿吉國.	《冊府元龜》 권969
521. 6	正光二年 六月 癸巳, 勿吉國遣使朝貢.	《魏書》 권9

후부여가 494년 고구려에 투항했는데(②-㉔), “지금 부여가 물길에게 쫓겨났다”는 기사에서 보듯이(②-㉔) 후부여 지역은 최종적으로 물길에 의해 점령되었다. 물론 고구려가 물길의 남하를 방지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고구려와 물길은 후부여를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했을 텐데, 물길의 북위 사신 파견 현황을 통해 그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물길의 북위 사신 파견은 475년에서 521년까지 총 24회 확인된다. 507년 이후에는 물길이 거의 매년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지만, 그 이전에는 7회만 확인된다. 더욱이 478-485년, 488-493년, 493-503년에는 물길의 북위 사신 파견이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다. 이중 478-485년의 사신 파견 중단은 후술하듯이 고구려와 유연의 地豆于 분할 모의와 연관되어 있다. 그럼 488-493년과 493-503년에는 왜 사신 파견이 중단되었을까?

이와 관련해 494년 후부여가 고구려에 투항한 사건이 주목된다. 고구려는 494년 후부여의 투항을 전후해 물길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에서 고구려와 물길 사이에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물길이 고구려와의 공방전에 치중하느라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물길은 북위의 교섭을 통해 고구려를 견제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고구려와의 공방전에 치중하느라 사신 파견을 중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길은 475년에 동류 송화강 상류 방면의 수로를 통해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 그런데 후부여를 둘러싼 고구려와 물길의 공방전이 치열해지면 서 동류 송화강 상류에서 북류 송화강 하류로 이어지는 수도도 전장으로

변모했을 것이다. 물길의 동류 송화강 상류의 수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사신을 파견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물길은 488-493년과 493-503년 등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지 못했던 것이다.¹⁰⁴⁾

그런데 고구려는 正始 연간(504-508년)에 북위에 사신을 파견해 “지금 부여가 물길에게 쫓겨났다”고 알렸다(②-㉔). 물길도 503년 북위에 대한 사신 파견을 재개했다. 이로 보아 후부여를 둘러싼 고구려와 물길의 각축전이 503-504년 직전 물길의 승리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물길의 農安 일대 등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까지 진출한 것이다.¹⁰⁵⁾

이에 물길은 503년부터 북위에 대한 사신 파견을 재개했다. 특히 물길은 農安 일대를 점령함으로써 松遼分水嶺을 가로질러 西遼河로 나아가는 최단 교통로를 확보했다. 물길의 안정적으로 북위와 교섭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물길은 507년부터 521년까지 거의 매년 사신을 파견했고, 514-518년에는 연간 두 차례나 遣使하기도 했다(<표 1>).¹⁰⁶⁾

104) 물길의 493년 후부여에 대한 공세를 마무리하고 대규모 사절단을 북위에 보냈다고 보기도 하지만(김락기, 2013 앞의 책, 102-103쪽), 이 경우 물길의 493-503년까지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105) 노태돈, 1999 앞의 책, 523쪽

106) 日野開三郎, 1988 앞의 책, 490-492쪽; 김락기, 2013 앞의 책, 83-89쪽

IV. 高句麗의 북방 接境空間 및 諸族과의 관계 변화

1. 고구려 북방 접경공간의 변화

이상과 같이 물길은 동류 송화강 상류로 진출하며 고구려 10락을 격파한 다음, 475년에 松花江-嫩江 수로를 통해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 물길은 475년 이후 동류 송화강 상류에서 북류 송화강 하류로 이어지는 수로를 통해 고구려 방면 진출을 시도하여, 494년에 후부여를 고구려에 투항하도록 했고, 503-504년 직전에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를 점령했다.

고구려가 북류 송화강 하류나 동류 송화강 상류에 대한 통제권이나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북류 송화강에서 동류 송화강 하류 방면이나 嫩江 상류로 이어지는 수로도 자유롭게 이용하기 힘들어졌을 것이다. 이로 인해 고구려의 北方 境域이 줄어들고, 북방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되었을 것이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물길의 남하로 인해 고구려가 吉林 地域을 상실했다고 보기도 하지만,¹⁰⁷⁾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논거는 없다.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에서는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吉林 지역에는 龍潭山城, 東團山城, 三道嶺子山城 등이 분포하고 있다.¹⁰⁸⁾ 이들 성곽은 송화강 연안을 따라 분포하는데, 龍潭山城과 東團山城은 吉林 地域 중심부에 위치하며, 三道嶺子山城은 하류 방면에서 吉林 地域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다. 고구려가 舊夫餘 지역에 대한 지방지배와 함께 북류 송화강 하류 방면에 대한 군사방어를 고려해 성곽을 축조했던

107) 津田左吉, 1964 앞의 책, 26-30쪽; 池內宏, 1951 앞의 책, 506-509쪽; 楊保隆, 1985 앞의 글, 71-73쪽; 李建才, 1982a 앞의 글, 135-136쪽; 張雲樵, 1992 <吉林滿族的淵源及衍變考略> 《社會科學戰線》 1992-2, 212-213쪽; 송기호, 2003 앞의 글, 335-336쪽; 范恩實, 2010 앞의 글, 75-76쪽; 梁玉多, 2012 앞의 글, 48-49쪽

108) 董學增, 1986 <吉林市龍潭山高句麗山城及其附近衛城調查報告> 《北方文物》 1986-4; 李建才, 1995 <吉林市龍潭山山城考> 《博物館研究》 1995-2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성곽에서는 아직 물길과 관련한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된 적이 없다. 만약 물길이 5세기 후반에 吉林地域까지 진격했다면, 이들 성곽을 점거하여 사용했을 것이다. 성곽 전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 놓고 본다면 물길이 吉林地域까지 진출해 이들 성곽을 점거했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고구려가 이들 성곽을 바탕으로 물길의 남진을 저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吉林地域 서북방에는 大黑山脈이 동북에서 서남으로 뻗어 있다. 大黑山脈은 북류 송화강 東岸의 舒蘭에서 시작해 송화강 본류와 그 지류인 飲馬河·伊通河 상류, 東遼河 상류를 가로질러 遼河 東岸의 昌圖-開原에 이르는데, 唐宋代에 金山山嶺이라 불릴 정도로 吉林地域과 農安-長春 일대를 가르는 자연경계로 인식되었다. 고구려가 吉林地域의 성곽과 함께 천연장벽인 大黑山脈을 활용해 물길의 남진을 저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5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와 물길은 吉林地域 서북방의 大黑山脈을 경계로 접경을 이루었다고 추정된다.¹⁰⁹⁾ 고구려의 북방 영역이나 세력권이 동류 松花江 상류 연안에서 大黑山脈 남쪽 일대로 후퇴한 것이다. 반면 물길은 동류 송화강 중하류에서 북류 송화강 하류에 이르기까지 동서로 기다랗게 분포하며 고구려의 북방 접경공간을 에워싸는 형세를 이루었다. 고구려의 북방 접경공간이 물길에 의해 가로막힌 것이다.

109) 日野開三郎, 1988 앞의 책, 494-497쪽; 김락기, 2013 앞의 책, 89-94쪽. 고구려는 6세기 후반에 農安 일대의 부여성을 재장악한 다음, 그 서북쪽의 粟末靺鞨을 예속시키고, 拉林河 유역의 伯咄靺鞨까지 귀속시키는데(노태돈, 1999 앞의 책, 523-524쪽), 이러한 작전은 吉林地域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파악된다.

2. 고구려 북방 제족의 분포 양상

북방 접경공간의 변화로 인해 고구려는 北方 諸族과 원활하게 교섭하기 힘들어졌을 것이다. 또한 물길 주민이 대거 이주하면서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는 부여인, 고구려인, 물길인 등이 混居하는 지역으로 변모했을 것이다. 물길의 진출로 인해 고구려의 북방 경역이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諸族과의 관계 및 接境空間의 주민구성이 크게 변모한 것이다.

이 가운데 北方 諸族과의 관계 변화와 관련해 다음 사료들이 주목된다.

③-㉠ 李敖가 그 도성 平壤城에 이르러 그 나라 일을 탐방하여 일컫기를 “遼東의 남쪽 1천여 리에 있는데, 동으로 柵城에 이르고, 남으로 小海에 이르고, 북으로 舊夫餘에 이르며, 民戶는 前魏[曹魏] 때보다 3배 많다. 그 지역은 동서가 2천리, 남북이 2천여 리이다.”고 했다.

③-㉡ 勿吉國은 高句麗의 북쪽에 있는데, 옛날 肅慎國이다.

③-㉢ 失韋國은 勿吉 북쪽 천리에 있는데, 洛陽에서 6천리 거리이다. 그 行路는 和龍을 출발해 북쪽 1천여 리에서 契丹國으로 들어가며, 또 북쪽으로 10일 가면 啜水에 이르고, 또 북으로 3일 가면 蓋水가 있고, 또 북으로 3일 가면 犢子山이 있는데 그 산은 高大하여 둘레가 3백여 리에 이른다. 또 북으로 3일 가면 大水가 있는데 屈利라 일컫고, 또 북으로 3일 가면 刃水에 이르고, 또 북으로 5일 가면 그 나라에 도착한다. 큰 강이 있어 북쪽으로부터 흘러오는데 너비가 4리 남짓으로 椽水라 부른다.

③-㉣ 豆莫婁國은 勿吉國 북쪽 천리에 있는데, 洛陽에서 6천리 거리로 옛날 北夫餘이다. 失韋의 동쪽이며, 동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둘레가 2천리다.

③-㉤ 地豆于國은 失韋 서쪽 1천리 정도에 있다.

③-㉥ 烏洛侯國은 地豆于 북쪽에 있는데 代都에서 4,500여 리 거리이다. (중략) 그 나라 서북쪽에 完水가 있는데, 동북으로 흘러 難水에 합류하며, 그 지역의 작은 강은 모두 難水로 흘러들어 동으로 바다로 유입된다. 또 서북으로 20일 가면 于巴尼大水가 있는데 이른바 北海이다. 世祖 眞君四年에 來朝하여 일컫기를 “그 나라 서북에 북위 先帝의 舊墟가 있는데, 石室은 남북 90보 동서 40보로 높이는 70척이며, 석실에 神靈이 있어서 주민들

이 소망을 많이 기원한다.”고 했다. 世祖가 中書侍郎 李敏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석실 벽면에 祝文을 새기고 돌아왔다. (이상, 《魏書》 권100 동이전)

사료 ③은 《위서》 동이전 가운데 만주 일대 국가나 족속의 지리정보를 간추린 것이다. ③-①은 435년 고구려를 방문했던 李敖의 傳聞인데, 고구려가 舊夫餘 지역까지 진출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는 물길의 북류 송화강 하류로 진출하기 이전으로, 고구려가 구부여의 영역이었던 동류 송화강 상류 연안까지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관련 사료가 없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 무렵 고구려가 구부여의 중심지였던 吉林地域을 거점으로 삼아 북방의 여러 족속과 다양한 교섭을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③-①을 제외한 다른 사료를 종합하면, 고구려 북쪽에 물길이 위치했지만(③-㉠), 失韋와 豆莫婁는 모두 물길의 북쪽 천리에 위치했다고 한다(③-㉡, ③-㉢). 또한 地豆于는 실위의 서쪽 천리에 위치했고(③-㉣), 烏洛侯는 지두우의 북쪽에 위치했다(③-㉤). 각 족속의 위치를 고구려를 시발로 연쇄적으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북위가 고구려의 중심적 위상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¹¹⁰⁾ 그렇지만 각 족속의 실제 위치를 보면, <지도 2>에서 보듯이 물길을 제외하면 고구려와 접경을 이룬 경우가 없다.

110) 여호규, 2017 <고구려와 중국왕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공간인식>《한국고대사연구》 88, 197-201쪽

역,115) 阿魯河(또는 諾敏河)-甘河 유역,116) 諾敏河-甘河 유역,117) 甘河 하류 유역,118) 嫩江縣 일대119)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120)

오락후의 서북쪽에는 ‘北魏 先帝의 舊墟’가 있는데(③-⑥), 눈강 지류인 甘河 상류의 鄂倫春旗 阿里河鎮에서 북위 태무제가 443년에 李敞을 보내 拓拔部 先祖에게 제사지낸 嘎仙洞 유적이 발견되었다.121) 또한 오락후 지역의 작은 하천은 모두 難水 곧 눈강으로 유입된다. 양자를 종합하면 오락후는 甘河를 중심으로 눈강 중상류의 서쪽 지역에 위치했다고 파악된다.

오락후전에는 大興安嶺山脈 동쪽뿐 아니라 서북방의 하천이나 호수도 나온다. 가령 오락후 서북쪽에 있는 完水是 동북으로 흘러 難水[눈강-송화강]과 합류한다고 하는데, 흑룡강 상류의 額爾古納河로 비정된다.122) 오락후의 서북쪽 20일 거리에 있다는 ‘于巴尼大水’는 額爾古納河 상류와 연결된 呼倫湖로 비정된다.123) 그럼 대흥안령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오락후

113) 張博泉·蘇金源·董玉瑛, 1983 앞의 책, 71-72쪽

114) 孫進己·王綿厚, 1989 앞의 책, 155-157쪽

115) 譚其驥(주편), 1988 앞의 책, 56-58쪽

116) 張久和, 1998b 앞의 글, 59쪽

117) 鄭英德, 1983 <烏洛侯地理位置再探><黑龍江文物叢刊> 1983-1, 69-72쪽

118) 王德厚, 1987 <烏羅渾與烏羅護辨釋><民族研究> 1987-4, 69-70쪽; 王綿厚·李健才, 1990 앞의 책, 112-113쪽; 李健才, 2001b 앞의 글, 189-190쪽

119) 于志耿·李士良, 1981 <烏洛侯與黑龍江歷史地理諸問題><求是學刊> 1981-4, 120-121쪽

120) 嫩江 중상류의 동쪽 유역까지 오락후 지역으로 파악하거나(張秦湘, 1981 <從北魏祖廟石室看烏洛侯的位置及其他><求是學刊> 1981-3, 38-40쪽), 嫩江 서남쪽의 歸流河-霍林河 일대로 비정하기도 한다(于志耿·孫進己, 1983 <室韋地理考述><社會科學戰線> 1983-3, 174-176쪽).

121) 米文平, 1981 <鮮卑石室的發現與初步研究><文物> 1981-2

122) 丁謙, 1915 <魏書各外國傳地理考證>(浙江圖書館叢書 제1집) 浙江圖書館, 7쪽; 于志耿·李士良, 1981 앞의 글, 121쪽; 李健才, 1982a 앞의 글, 135쪽; 譚其驥(주편), 1988 앞의 책, 56-58쪽. 完水에 대한 여러 견해는 張久和, 1998a <室韋地理再考辨><中國邊疆史地研究> 1998-1, 90쪽 각주 3 참조.

전에 대흥안령산맥 서북방의 지명이 명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北魏 代都에서 오락후까지의 거리는 4천 5백리인 반면(③-⑤), 嘎仙洞 유적까지의 거리는 4천리라고 기술한 사실이¹²⁴⁾ 주목된다. 代都에서 嘎仙洞 유적까지의 거리가 오락후보다 가깝다고 기술한 것이다. 代都에서 대흥안령산맥 동쪽을 경유하면 嘎仙洞 유적이 오락후보다 멀지만, 서쪽을 경유하면 嘎仙洞 유적이 오락후보다 가깝다. 이는 오락후와 북위가 대흥안령산맥 서쪽을 경유해 교섭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오락후전에 양자의 교섭로인 대흥안령산맥 서북방의 呼倫湖[于己尼大水]나 額爾古納河[完水] 등을 기재한 것이다.

失韋의 위치는 흑룡강 유역,¹²⁵⁾ 흑룡강-눈강 상류,¹²⁶⁾ 눈강 유역¹²⁷⁾ 등으로 지정되는데,¹²⁸⁾ ③-⑤의 여러 하천과 산 특히 榛水の 위치가 논쟁의 핵심 대상이다. 실위는 물길의 북쪽 천리에 위치했다고 하므로 동류 송화강보다 북쪽으로 지정할 수 있다. 榛水는 《위서》 물길전의 難河나 오락후전의 難水와 같은 하천으로 唐代에는 那河로도 불렸는데,¹²⁹⁾ 북위 시기

123) 孫進己·王綿厚, 1989 앞의 책, 155-157쪽. 于己尼大水を 바이칼호로 지정하기도 하지만(潭其驥(주편), 1988 앞의 책, 56-58쪽), 거리상 너무 멀다.

124) 《魏書》 권108 예지 : “魏先之居幽都也, 鑿石爲祖宗之廟於烏洛侯國西北. 自後南遷, 其地隔遠. 眞君中, 烏洛侯國遣使朝獻, 云石廟如故, (중략) 遣中書侍郎李敞詣石室, 告祭天地, 以皇祖先妣配 (중략) 石室南距代京可四千餘里.”

125) 張泰湘, 1981 앞의 글, 39-40쪽. 구체적으로 黑龍江 상류의 愛琿 일대(白鳥庫吉, 1910-1912 앞의 글: 1970 앞의 책, 205-215쪽), 額爾古納河 유역(潭其驥 주편, 1988 앞의 책, 54-56쪽), 呼瑪河 유역(王綿厚·李健才, 1990 앞의 책, 114-117쪽; 李健才, 2001b 앞의 글, 190-192쪽) 등으로 지정한다.

126) 張博泉·蘇金源·董玉瑛, 1983 앞의 책, 72쪽

127) 丁謙, 1915 앞의 책, 5쪽. 失韋의 중심지는 치치하르(津田左右吉, 1964 앞의 책, 43-45쪽; 方壯猷, 1987 앞의 책, 284-288쪽; 王志耿·孫進己, 1983 앞의 글, 175쪽) 또는 嫩江縣(孫進己·王綿厚, 1989 앞의 책, 158-160쪽) 일대로 파악한다.

128) 失韋의 위치에 대한 여러 견해는 張久和, 1998a 앞의 글, 92쪽 각주 6 참조.

129) 《新唐書》 권220 流鬼전

의 棕水=難河=難水는 눈강, 동류 송화강, 흑룡강 하류 등을 아우른 명칭이다. 다만 실위전의 棕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고 하므로 지금의 눈강에 해당한다.

실위의 위치는 동류 송화강 북쪽의 눈강 일대로 비정되는 것이다. 실위의 구체적인 위치는 ③-㉔에 나오는 화룡-실위의 행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거란 북쪽 10일 거리의 吸水는 洮兒河 지류나¹³⁰⁾ 綽爾河로¹³¹⁾ 비정하기도 한다.¹³²⁾ 그런데 물길전의 太魯水=太瀾河는 如洛瓊水(洛孤水=시라무렌하)에서 15일 거리인데(①-㉑), 눈강 가장 남쪽 지류인 洮兒河로 비정된다. 소요 시간을 비교하면, 吸水는 洮兒河보다 남쪽에 위치했다고 보아야하며, 이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하천은 霍林河(呼林河)이다.¹³³⁾

吸水 이후의 산과 하천은 吸水=霍林河를 기준으로 비정할 수 있다. 吸水 북쪽 3일 거리의 蓋水는 洮兒河의 남쪽 지류인 歸流河로 비정된다. 蓋水 북쪽 3일 거리의 犢了山은 高大하고 둘레가 300여리에 이른다고 하는데, 大興安嶺山脈 中段에서 가장 험준한 太平嶺-興安嶺平杠 일대로 비정된다. 犢了山 북쪽 3일 거리에 위치한 大水인 屈利水는 綽爾河, 屈利水 북쪽 3일 거리의 刃水는 雅魯河로 각각 비정할 수 있다.¹³⁴⁾

실위의 중심지는 刃水(雅魯河) 북쪽 5일 거리에 위치했다고 하는데, 甘

130) 交流河나 歸流河로 비정된다(孫進己·王綿厚, 1989 앞의 책, 158-160쪽).

131) 潭其驥(주편), 1988 앞의 책, 57쪽 및 60-61쪽

132) 吸水의 위치에 대한 여러 견해는 張久和, 1998a 앞의 글, 91쪽 각주 3 참조.

133) 丁謙, 1915 앞의 책, 5쪽; 賈敬顏, 1993 앞의 책, 17쪽; 干志耿·孫進己, 1983 앞의 글, 175쪽; 張柏忠, 1984 <霍林河名稱沿革考><黑龍江文物叢刊> 1984-2, 47-48쪽; 王德厚, 1989 <室韋地理考補><北方文物> 1989-1, 71쪽; 張久和, 1991 <南北朝隋唐時期室韋地域考> <內蒙古社會科學> 1991-5, 57쪽; 戴順·李俊義, 2012 <霍林郭勒名稱小考> <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2012-4, 22쪽

134) 吸水=霍林河 논자도 대부분 蓋水, 犢了山, 屈利水, 刃水 등의 위치를 필자와 다르게 비정했다(張久和, 1998a 앞의 글, 92쪽의 각주 1 참조). 다만 王德厚, 1989 앞의 글, 71-72쪽의 견해는 필자와 거의 같다.

河 등 눈강 중상류의 서쪽에는 오락후가 위치했으므로 실위는 눈강 동쪽의 烏裕爾河=訥謨爾河 유역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刃水(雅魯河) 북쪽의 치치하르 부근에서 눈강을 건너 다음 실위 중심부로 진입했다고 파악된다.¹³⁵⁾ 시라무렌하에서 대흥안령산맥 동록을 따라 북상하다가 雅魯河 북쪽의 치치하르 부근에서 눈강을 건너 실위 중심부에 당도했던 것이다.¹³⁶⁾

오락후전에는 실위전에 나오는 눈강의 서쪽 지류가 나오지 않는다. 이는 오락후가 실위전에 나오는 눈강 지류보다 북쪽에 위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오락후는 雅魯河보다 북쪽의 阿倫河(또는 諾敏河)에서 甘河에 이르는 눈강 서쪽의 지류 유역에 위치했다고 추정된다. 오락후와 실위가 눈강을 경계로 그 동서에 분포한 것이다.¹³⁷⁾ 다만 오락후가 대흥안령산맥 서록을 따라 북위와 교섭한 반면, 실위는 동록을 따라 교섭했다. 이로 인해 눈강으로 비정되는 難水나 榛水를 제외하면, 양자가 북위와 교섭하며 공통으로 경유했던 하천이나 산이 없었다.

豆莫婁는 실위와 함께 물길의 북쪽 천리에 위치했는데, 실위의 동쪽에 해당하며,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다고 한다(③-㉔). 두막루국은 ‘옛날의 北夫餘’라고 하는데, 《신당서》 流鬼전에는 “達末婁는 스스로 북부여

135) 榛水の 너비는 4리라고 하는데, 수많은 沼澤과 泡子가 형성된 치치하르 부근의 嫩江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郝思德, 1987 <嫩江名稱考略> <東北歷史地理論著匯編>(제1책), 200쪽). 특히 烏裕爾河 하류는 沼澤地로 이루어져 河口를 확인하기도 힘든데, ‘烏裕爾’은 女真語로 ‘潑洼地’를 뜻한다(張泰湘, 1981 앞의 글, 38쪽).

136) ③-㉔에서 보듯이 契丹에서 失韋까지 총 27일이 소요되었는데, 1693년 러시아인 Isbrants Ides는 지금의 치치하르에서 喜峰口(灤河 중류의 唐山市 遷西)까지 27일, 1736년 러시아인 Bretsch Neider는 치치하르에서 시라무렌하까지 29일, 독일 지리학자 Ritter는 치치하르에서 시라무렌하까지 18일 소요되었다고 한다(白鳥庫吉, 1970 앞의 책, 340-341쪽; 方壯猷, 1987 앞의 책, 285-286쪽).

137) 嫩江 중하류의 서쪽지역까지 失韋의 분포범위로 설정하기도 한다(張久和, 1998a 앞의 글, 89-92쪽).

의 후에라 말하는데, 고구려가 그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遺人들이 那河를 건너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¹³⁸⁾ 사료 ③-㉔과 비교하면 唐代的 달말루는 북위 시기의 두막루와 동일한 실제임을 알 수 있다.¹³⁹⁾

唐代的 那河는 눈강과 동류 송화강으로 비정되며,¹⁴⁰⁾ 두막루(달말루)의 전신이라는 북부여는 전기 부여를 지칭한다.¹⁴¹⁾ 상기 사료처럼 두막루(달말루)가 전기 부여의 후에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막루가 那河 곧 동류 송화강 북쪽에 위치했음은 명확하다.¹⁴²⁾ 또한 두막루가 실위 동쪽에 위치했다고 하므로 실위의 분포구역인 烏裕爾河-訥謨爾河 동쪽의 呼蘭河 유역과 小興安嶺山脈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¹⁴³⁾

地豆于는 실위의 서쪽 천리에 위치했는데, 오라후의 남쪽에 해당한다(③-㉕). 479년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모의 사건을 통해 지두우가 양국 사이에 위치하며, 고막해나 거란과도 인접했음을 알 수 있다(사료 ④ 참조). 이러한 지리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시라무렌하와 洮兒河 사이인데,¹⁴⁴⁾ 巴林部 일대,¹⁴⁵⁾ 大興安嶺山脈 中段 산지,¹⁴⁶⁾ 烏珠穆沁旗의 烏拉根

138) 《新唐書》 권220 流鬼전

139) 김정배, 1991 <두막루국 연구> 《국사관논총》 29, 72-74쪽

140) 李健才, 1982a 앞의 글, 135-136쪽

141) 노태돈, 1999 앞의 책, 518-519쪽

142) 이에 동류 송화강 북쪽의 松嫩平原 일대로 비정하기도 한다(김정배, 1991 앞의 글, 77-80쪽).

143) 譚其驤(주편), 1988 앞의 책, 56쪽; 孫進己·王綿厚, 1989 앞의 책, 147-148쪽. 한편 那河를 흑룡강으로 상정한 다음 두막루를 흑룡강 유역으로 비정하거나(白鳥庫吉, 1970 앞의 책, 223-224쪽), 실위를 흑룡강 상류의 呼瑪河 유역으로 상정한 다음 두막루를 흑룡강 중류-하류로 비정하기도 한다(王綿厚·李健才, 1990 앞의 책, 112-113쪽). 최근에는 두막루를 三江平原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도 제시되었다(강인옥, 2015 앞의 글, 136-137쪽).

144) 張博泉·蘇金源·董玉瑛, 1983 앞의 책, 71쪽; 송기호, 2008 앞의 글, 223쪽

145) 白鳥庫吉, 1970 앞의 책, 184-197쪽

郭勒河(烏拉蓋高勒河) 유역¹⁴⁷⁾ 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지두우의 위치와 관련해 “오락후가 지두우의 북쪽에 위치했다(③-㉔)”는 사실이 주목된다. 전술했듯이 오락후는 대흥안령산맥 동쪽인 눈강 상류의 서쪽에 위치했는데, 북위와 교섭할 때는 대흥안령산맥 서쪽을 따라 남하했다. 이때 지두우를 경유했기 때문에 오락후의 위치를 지두우 북쪽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지두우는 눈강 서안과 시라무렌하 사이 지역 가운데, 대흥안령산맥 서쪽을 따라 북위의 代都[平城, 大同]로 갈 때 경유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은 烏珠穆沁旗의 烏拉根郭勒河 일대이다.¹⁴⁸⁾

지두우의 중심 지역은 烏珠穆沁旗의 烏拉根郭勒河 일대이며, 그 동쪽의 歸流河나 霍林河(呼林河) 유역도 일부 포함했다고 추정된다. 이 지역은 고구려와 유연의 중간 지대로 동남쪽으로 通遼-四平을 거쳐 고구려 경내로 진입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유연 경내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실위의 서남쪽으로 실위가 북위와 교섭할 때 경유했던 대흥안령산맥 동쪽 루트의 서쪽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에 “지두우는 실위의 서쪽 천 여리에 위치했다”라고 표기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을 통해 고구려 북방 諸族의 분포지역을 파악했다. 두막루는 동류 송화강 북쪽의 呼蘭河와 소흥안령산맥 일대, 오락후는 눈강 서쪽의 阿倫河(또는 諾敏河)-甘河 일대, 실위는 눈강 동쪽의 烏裕爾河-訥謨爾河 유역으로 각기 비정된다. 지두우는 烏珠穆沁旗의 烏拉根郭勒河 일대를 중심으로 歸流河나 霍林河(呼林河) 유역을 일부 포함했다고 추정된다(<지도 2>).

146) 鄭英德, 1983 앞의 글, 72쪽

147) 丁謙, 1915 앞의 책, 6쪽; 孫進己·王綿厚, 1989 앞의 책, 154쪽

148) 地豆于는 唐代的 靺靨에 해당하는데(白鳥庫吉, 1970 앞의 책, 185쪽), 烏珠穆沁旗의 烏拉根郭勒河 일대는 四面이 산으로 둘러싸였다는 靺靨의 지리환경과도 부합한다(《舊唐書》 권199하 靺靨).

3. 고구려와 북방 제족의 관계 변화

이상과 같이 두막루, 오락후, 실위 등은 동류 송화강이나 눈강의 지류 연안에 분포했다. 그러므로 물길이 북류 송화강 하류로 진출하기 이전에는 고구려가 송화강-눈강 수로를 통해 이들과 교섭했을 가능성이 높다.¹⁴⁹⁾ 특히 실위의 분포구역인 烏裕爾河-訥謨爾河 유역이나 두막루의 거주구역인 呼蘭河-소흥안령산맥 일대는 고구려의 북방에 해당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의거한다면, 두막루나 실위는 고구려 북쪽에 위치했다고 기술했을 것이다.

그런데 물길이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까지 진출함에 따라 고구려와 실위·두막루 사이에 물길이 위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물길은 고구려 북쪽에 위치했지만, 실위와 두막루는 물길 북쪽 천리에 위치했다”는 사료 ③의 기술내용은 물길이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까지 진출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파악된다. 이처럼 물길이 북류 송화강 하류까지 진출해 고구려의 북방 접경공간을 에워싸고, 고구려와 북방 제족 사이에 위치함에 따라 고구려는 북방 제족과 활발하게 교섭하기 힘들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5세기 후반 고구려와 물길의 각축전은 북방 제족과의 교섭로를 둘러싼 공방전의 성격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479년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모의 사건이 주목된다.

④-① 太和3년(479년), 高句麗가 몰래 蠕蠕과 모의하여 地豆于를 공취해 분할하려 했다. 契丹이 침공을 두려워해 莫弗賀 勿于가 部落의 수레 3천乘과 무리 만여 명을 거느리고 가축을 몰아서, 內附하기를 구하며 白狼水 동쪽에 머물렀다. 이해부터 늘 조공했다. (《魏書》 권100 契丹전)

④-② 後魏[북위] 시기에 고구려의 침략을 받았는데, 부락 1만여 명이

149) 6세기 말경 고구려가 南室韋에 철을 수출했는데(《隋書》 권84 室韋전), 松花江-嫩江 수로를 이용했을 것이다.

內附하기를 구하며 白狼河에 머물렀다. (《隋書》 권84 契丹전)

④-㉔ 太和4년(480년), 문득 塞內로 들어왔는데, 地豆于가 鈔掠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詔書を 내려 책망했다. (《魏書》 권100 庫莫奚전)

④-㉕에서 보듯이 고구려는 479년에 유연[蠕蠕]과 모의해 지두우를 분할하려고 했다. 이에 거란의 莫弗賀 勿于가 北魏에 內附를 구하며 大凌河 상류의 白狼水로 이주했는데, 이때 고구려가 거란을 공격했다고 전하기도 한다(④-㉔). 고막해도 480년 지두우의 침략을 우려해 북위의 영역 내부 [塞內]로 들어갔다(④-㉕).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瓜分] 모의로 인해 이 일대의 정세가 크게 동요했던 것이다.¹⁵⁰⁾

그럼 고구려와 유연은 왜 지두우를 분할하려고 모의했을까? 470년대 유연과 북위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유연이 우위를 점한 상황이었다. 특히 유연은 472년경부터 북위를 거세게 공격했는데, 동방 지역에서는 436년 북위의 요서진출로 상실했던 거란과 고막해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 했다.¹⁵¹⁾ 한편 이 무렵 북위는 472년 백제의 사신을 받아들이고, 475년에는 물길과 교섭을 진행하며 고구려와 주변국의 관계에 간섭하려 했다.¹⁵²⁾ 고구려로서는 주변국과 북위의 연계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물길이 475년 松花江-嫩江 수로와 大興安嶺山脈 동록의 육로를 우회하여 북위와 교섭을 전개했다. 물길과 북위의 교섭을 방지한다면, 고구려로서는 송화강-눈강 수로 연변이나 대흥안령산맥 동록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었다. 이에 고구려는 479년에 유연과 함께 지두우를

150) 노태돈, 1984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동방학지》 44, 17-18쪽, 1999 앞의 책, 309-310쪽

151) 박원길, 2002 <고구려와 유연·돌궐의 관계>《고구려연구》 14, 13-15쪽; 이재성, 2002 앞의 글, 36-38쪽

152) 이성제, 2005 <고구려의 서방정책과 대북위관계의 정립>《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21-129쪽

분할해 물길과 북위의 교섭로를 차단하려 했다고 파악된다.¹⁵³⁾

이러한 고구려의 시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 1>에서 보듯이 물길은 478년부터 485년까지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신 파견 중단은 물길 내부의 사정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겠지만,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모의로 대흥안령산맥 동록 일대가 혼란에 빠져 북위와의 교섭로를 확보하기 힘들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와 물길이 대북위 교섭로 나아가 주변 족속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한 것이다.¹⁵⁴⁾

⑤-㉠ (太和)9년(485년), 다시 侯尼支를 사신으로 보내 朝獻했다. 이듬해에 다시 入貢했다. 그 곁에 大莫盧國, 覆鍾國, 莫多回國, 庫婁國, 素和國, 具弗伏國, 匹黎尒國, 拔大何國, 郁羽陵國, 庫伏眞國, 魯婁國, 羽眞侯國 등이 있는데, 전후로 각기 사신을 보내 朝獻했다. 太和12년(488년)에 勿吉이 다시 사신을 보내 京師에 楛矢와 方物을 공헌했다. (《魏書》 권100 勿吉전)

⑤-㉡ 太和 연간에 著作佐郎에 임명되었다가 곧 尙書儀曹郎中으로 옮겼는데, 兼員外散騎常侍로 황명을 받들어 고구려에 갔다. 고구려왕 雲이 멀리 있음을 믿고 병을 핑계로 친히 詔書를 받지 않으려 했다. 封軌가 정색하여 꾸짖고 大義로 깨우치자, 雲이 北面하여 조서를 받았다. 이에 앞서 契丹이 邊民 60여 명을 虜掠했는데, 또 고구려를 위해 (변민을) 擄掠하여 동쪽으로 돌아갔다. 封軌가 진상을 듣고 글을 보내 邊民을 요구하자, 雲이 모두 물자를 공급해 귀환시켰다. (《魏書》 권32 封軌전)

153) 이재성, 1996 앞의 책, 164-176쪽; 김락기, 2013 앞의 책, 83쪽. 물론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두우 분할 모의 사건은 동방지역에 대한 북위의 간섭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었다(이성제, 2005 앞의 책, 132-136쪽).

154) 고구려도 479년 9월 이후 484년 2월까지 약 3년 반 가까이 북위에 遣使하지 않았다(김종완, 1995《중국남북조사연구》 일조각, 81쪽의 <표 5>). 유송에서 남제로의 교체라는 중국대륙의 정세변화와 지두우 분할 모의에 따른 북위와의 갈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별고를 통해 상론하도록 하겠다.

⑤-⑦에 따르면 물길(勿吉)이 485년과 486년에 잇따라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고, 이를 전후해 물길 주변의 大莫廬國 등 12국이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고, 488년에 물길(勿吉)이 다시 사신을 파견했다고 한다. 기술 순서로 보아 대막로국 등 12국은 486-488년을 전후해 물길과 함께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막로국을 두막루로 추정하는 한편,¹⁵⁵⁾ 나머지 12국도 물길과 인접한 阿什河-拉林河 유역으로 비정하거나¹⁵⁶⁾ 牧丹江 중류의 河口 遺存을 12국의 하나로 상정하기도 한다.¹⁵⁷⁾

그런데 12국 가운데 具伏國, 鬱羽陵國, 匹黎爾國 등은 거란8부를 이루는 伏弗郁部, 羽陵部, 匹黎部, 黎部 등과¹⁵⁸⁾ 명칭이 비슷하다. 이들 3國은 467년(皇興元年)과 468년에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거란 부족인 具伏弗, 鬱羽陵, 匹黎爾 등과 명칭이 거의 같다. 12국의 하나인 羽眞侯國도 468년에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羽眞侯와 동일한 실체로 짐작되는데, 기재 순서로 보아 거란이나 그 주변 족속으로 추정된다. 拔大何國도 契丹8부의 하나인 阿大阿일 가능성이 높는데, 468년에 阿大阿部가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¹⁵⁹⁾

이렇게 본다면 486-488년을 전후해 물길과 함께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12국 가운데 상당수는 거란이나 그 주변 족속으로 추정된다.¹⁶⁰⁾ 이는 물길이 북위와의 교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거란을 비롯해 고막해,

155) 日野開三郎, 1988 앞의 책, 524-526쪽; 王綿厚·李健才, 1990 앞의 책, 112-113쪽

156) 日野開三郎, 1988 앞의 책, 487쪽

157) 劉曉東, 2013 앞의 글, 36-37쪽

158) 《魏書》 권100 契丹國전: 契丹國(중략) 悉萬丹部·何大何部·伏弗郁部·羽陵部·日連部·匹黎部·黎部·吐六于部等, 各以其名馬文皮入獻天府, 遂求爲常.

159) 《冊府元龜》 권969 外臣部 朝貢2

皇興元年(467) 二月 高麗·庫莫奚·具伏弗·鬱羽陵·日連·匹黎爾·于闐諸國

皇興二年(468) 四月 高麗·庫莫奚·契丹·具伏弗·鬱羽陵·日連·匹黎爾·叱六手·悉萬斤·阿大阿·羽眞侯·于闐·波斯等國.

160) 이재성, 1996 앞의 책, 177-178쪽

지두우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길의 이러한 외교적 조치는 고구려가 유연과 함께 지두우 분할을 모의해 물길-북위의 교섭로를 차단하려 했던 것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특히 고구려가 유연과 함께 지두우를 분할한다고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거란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④-㉔), 이에 거란의 일부 부족이 大凌河 방면으로 피난했다. 이로 인해 460-470년대에 고구려와 긴밀하게 교류하던 거란 부족 가운데 상당수가 고구려에 강력하게 반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술했듯이 467-479년에는 고구려와 거란이 같은 시기에 북위에 사신을 파견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479년을 끝으로 약 30년간 양국이 같은 시기에 遣使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¹⁶¹⁾

그러므로 479년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모의 사건을 계기로 고구려와 거란의 관계가 악화되자, 물길이 이를 틈타 거란에 접근해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486-488년을 전후해 물길이 거란8부를 이루는 具弗伏國, 郁羽陵國, 匹黎余國 등 12국과 함께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사료 ⑤-①은 이러한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물론 고구려도 물길과의 외교전에서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았다. ⑤-㉔에서 보듯이 북위의 封軌가 492-499년에¹⁶²⁾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는데, “그 직전에 거란이 (북위의) 邊民 60여 명을 노략했고, 또 고구려를 위해 (북위 변민을) 擁掠하여 동쪽으로 귀환했다”고 한다. 거란의 일부 부족이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북위의 변경을 공격했던 것이다.

161) 《冊府元龜》 권969 外臣部 朝貢2에 따르면 479-510년에 고구려와 거란은 각기 다른 시기에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고, 510년(영평3년) 6월부터 같은 시기에 건사 사실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다만 그 뒤에도 고구려와 거란이 같은 시기에 건사한 것은 513년(연창2년) 5월, 532년(태창원년) 6월 두 차례만 확인된다.

162) 북위의 太和연간은 477-499년이며, 고구려 문자명왕의 재위기간은 492-518년이다. 封軌는 양자가 겹치는 492-499년에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고 파악된다(이재성, 1996 앞의 책, 178-179쪽).

고구려와 물길의 외교전은 거란 이외에 다른 북방 제족과의 관계에서도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료를 통해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모의가 479년에 이루어졌고, 거란을 둘러싼 고구려와 물길의 외교전이 480년대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475년 이후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를 둘러싼 각축전과 더불어 북방 제족을 둘러싼 외교전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렇지만 물길이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의 각축전에서 승리해 고구려의 북방 접경공간을 에워쌌에 따라 북방 제족을 둘러싼 외교전도 물길의 승리로 귀착되었을 것이다. “실위와 두막루가 모두 물길의 북쪽 천리에 위치했다”는 사료 ③은 고구려와 북방 제족이 지리적으로 물길에 의해 차단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라 고구려는 송화강-눈강 수로를 다시 장악하거나 우회로를 개척해야 이들과 교섭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5세기 후반 물길의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 진출로 고구려의 북방 영역이 크게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북방 접경공간을 통해 이루어졌던 주변 제족과의 교섭도 단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고구려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종전과 유사한 대응책으로는 상황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았다. 물길이 대거 이주함에 따라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가 점차 여러 족속이 혼거하는 다종족 사회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고구려로서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검토한 것처럼 5세기 후반 물길의 중심지는 동류 송화강 중하류에 위치했다. 물길은 475년 직전에 고구려와의 상쟁을 통해 동류 송화강

상류로 진출한 다음, 475년에 松花江-嫩江 수로와 大興安嶺山脈 동쪽의 육로를 우회하여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와 함께 북류 송화강 하류를 통해 고구려 방면 진출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고구려와 물길이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는데, 494년 農安 일대의 후부여가 고구려에 투항하고, 503-504년 직전에는 물길이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를 점령했다.

고구려와 물길은 북방 제국을 둘러싼 외교전도 치열하게 전개했다. 고구려는 물길과 북위의 교섭로를 차단하기 위해 479년 유연과 함께 지두우 분할을 모의했다. 이러한 고구려의 조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물길이 478년 이후 485년까지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지 못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구려와 거란의 관계가 악화되자, 물길이 이를 역이용해 거란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다음 거란 부족과 함께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

그렇지만 고구려는 북류 송화강 하류를 둘러싼 각축전에서 패배함에 따라 북방 제국을 둘러싼 외교전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물길이 북류 송화강 하류까지 진출함에 따라 고구려는 大黑山脈을 경계로 물길과 접경을 이루게 되었다. 물길이 동류 송화강 중하류에서 북류 송화강 하류까지 동서로 길게 분포하며 고구려의 북방 접경공간을 에워싸는 한편, 북방 제국과의 교섭로도 차단한 것이다. 고구려로서는 松花江-嫩江 수로를 다시 장악하거나 우회로를 개척해야 이들과의 교섭을 재개할 수 있었다.

더욱이 물길 주민이 대거 이주하면서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는 점차 부여인, 고구려인, 물길인 등이 混居하는 다종족 사회로 변모했다. 다종족 사회로의 변모 양상은 榆樹 老河深 유적 상층, 舒蘭 黃魚圈珠山 유적, 永吉 楊屯 大海猛 유적 상층(3기), 永吉 查里巴 유적 등 물길-말갈 계통의 유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유적이 물길이 흥기하던 5세기 후반부터 조성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老河深 유적 상층의 M3에서는 北周의 화폐인 五行布가 출토되었다. 大海猛 유적 상층의 M17과 查里巴 유적의 M27에서는 唐 중기의 開元通

寶가 출토되었다.¹⁶³⁾ 이들 유적은 시기를 달리하며 장기간에 걸쳐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유적을 통해 다종족 사회로의 변모 양상을 고찰하려면 물길-말갈과 관련한 여러 시기의 문헌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물길의 진출로 인해 북류 송화강 하류 일대가 다종족사회로 변모하는 양상 및 고구려의 대응책 수립 양상 등은 후고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 高句麗, 勿吉, 北魏, 接境空間, 北方 諸族

(논문투고: 2018.06.05. / 논문심사완료: 2018.06.15. / 논문게재 확정일: 2018.06.18.)

163) 송기호, 2011 앞의 책, 17-18쪽; 喬梁, 2014 앞의 글, 131-132쪽

참고문헌

한국어 논저

- 강인욱, 2009 <말갈문화의 형성과 2-4세기 읍루·선비·부여계 문화의 관계> 《高句麗渤海研究》 33
- 강인욱, 2015 <三江平原 滾琿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 《高句麗渤海研究》 52
- 김락기, 2013 《高句麗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경인문화사
- 김정배, 1991 <두막루국 연구> 《국사관논총》 29
- 김종완, 1995 《중국남북조사연구》 일조각
- 김현숙, 2005 <말갈에 대한 지배방식>《고구려의 영역지배장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 노태돈, 1984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동방학지》 44
- 노태돈, 1989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國史館論叢》 3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노태돈, 2003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말갈의 실체>《한반도와 만주의 역사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원길, 2002 <고구려와 유연·돌궐의 관계>《고구려연구》 14
- 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출판사
- 송기호, 1998 <육정산 고분군의 성격과 발해 건국집단>《汕紘史學》 8
- 송기호, 2003 <粟末靺鞨의 원류와 부여계 집단문제>《한반도와 만주의 역사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기호, 2008 <5세기 후반 고구려의 북방 경계선>《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 송기호, 2011 《발해사회문화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송호정, 2015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 여호규, 2000 <고구려 천리장성의 경로와 축성배경>《국사관논총》 91
- 여호규, 2017 <고구려와 중국왕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공간인식>《한국고대사연구》 88
- 유은식, 2018 <고고학자료로 본 옥저와 읍루>《한국상고사학보》 100
- 이병도, 1975 <夫餘考>《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이성계, 2005 《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 이재성, 1996 《고대 동몽고사 연구》 범인문화사
- 이재성, 2002 <4-5세기 고구려와 거란>《고구려연구》 14
- 이종수, 2011 <三江平原地域 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 - 挹婁·勿吉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고구려발해연구》 41

중국어 논저

- 賈敬顏, <東北古地理古民族叢考>《文史》 12
- 賈敬顏, 1983 <東北古地理古民族叢考(續)>《北方文物》 1983-2
- 賈敬顏, 1993 《東北古代民族古代地理叢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賈偉明·魏國忠, 1989 <論挹婁的考古學文化>《北方文物》 1989-3
- 干志耿·孫進己, 1983 <室韋地理考述>《社會科學戰線》 1983-3
- 干志耿·李士良, 1981 <烏洛侯與黑龍江歷史地理諸問題>《求是學刊》 1981-4
- 喬梁, 2014 <關於靺鞨族源的考古學觀察與思考>《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14-2
- 金毓紱, 1976 <夫餘勿吉等東北部族>《東北通史》 洪氏出版社
- 譚其驤(주편), 1988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東北券) 中央民族學院出版社
- 戴順·李俊義, 2012 <‘霍林郭勒’名稱小考>《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2012-4

- 董學增, 1986 <吉林市龍潭山高句麗山城及其附近衛城調查報告>《北方文物》 1986-4
- 梁玉多, 2012 <簡析勿吉的對外擴張>《北方文物》 2012-1
- 劉曉東, 2013 <挹婁·靺鞨關係的考古學討論>《北方文物》 2013-1
- 劉曉東, 2014 <靺鞨文化的考古學研究> 吉林大學 박사학위논문
- 李建才, 1995 <吉林市龍潭山山城考>《博物館研究》 1995-2
- 武國勛, 1983 <扶餘王城新考>《黑龍江文物叢刊》 1983-4
- 米文平, 1981 <鮮卑石室的發現與初步研究>《文物》 1981-2
- 方壯猷, 1931 <室韋考>《輔仁學志》 2-2; 1987《東北歷史地理論著匯編(제2책)》 수록
- 范恩實, 2010 <勿吉興亡史探微>《北方論叢》 2010-1
- 孫進己·王綿厚, 1989《東北歷史地理(제2권)》 黑龍江人民出版社
- 孫進己·干志耿·孫秀仁, 1982 <松花江沿革考>《北方論叢》 1982-1; 1987《東北歷史地理論著匯編(제1책)》 수록
- 楊保隆, 1985 <勿吉地域西南部邊至考>《北方文物》 1985-4
- 王德厚, 1987 <烏羅渾與烏羅護辨釋>《民族研究》 1987-4
- 王德厚, 1989 <室韋地理考補>《北方文物》 1989-1
- 王綿厚, 1990 <東北古代夫餘部的興衰及王城變遷>《遼海文物學刊》 1990-2
- 王綿厚·李健才, 1990《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 王樂文, 2009 <挹婁·勿吉·靺鞨三族關係的考古學觀察>《民族研究》 2009-4
- 王樂文, 2011 <試論滾兔嶺文化的兩個問題>《北方文物》 2011-1
- 王禹浪·劉加明, 2013 <三江平原地域族體考古文化研究綜述>《黑龍江民族叢刊》 2013-2
- 王禹浪·王俊錚, 2015a <我國肅慎研究概述>《哈爾濱學院學報》 2015-7

- 王禹浪·王俊錚, 2015b <近百年來國內外勿吉研究綜述>《哈爾濱學院學報》 2015-11
- 魏存成, 2007 <靺鞨族起源發展的考古學觀察>《史學集刊》 2007-4
- 李健才, 1982a <松花江名稱的演變>《學習與探索》 1982-2
- 李健才, 1982b <扶餘的疆域和王城>《社會科學戰線》 1982-4
- 李健才, 2001a <三論北夫餘·東夫餘即夫餘的問題>《東北史地考略(제3집)》 吉林文史出版社
- 李健才, 2001b <勿吉·豆莫婁·烏洛侯·失韋的地理位置>《東北史地考略(제3집)》 吉林文史出版社
- 張久和, 1991 <南北朝隋唐時期室韋地域考>《內蒙古社會科學》 1991-5
- 張久和, 1998a <室韋地理再考辨>《中國邊疆史地研究》 1998-1
- 張久和, 1998b <關於烏洛侯的幾個問題>《黑龍江民族叢刊》 1998-2
- 張國強·霍東峰·華陽, 2006 <鳳林文化當議>《北方文物》 2006-2
- 張博泉, 2011 《夫餘與高句麗論集》 吉林文史出版社
- 張博泉·蘇金源·董玉瑛, 1983 《東北歷代疆域史》 長春：吉林人民出版社
- 張柏忠, 1984 <霍林河名稱沿革考>《黑龍江文物叢刊》 1984-2
- 張少珊·蘆會影, 2012 <東北亞視域中的鳳林文化>《北方文物》 2012-1
- 張雲樵, 1992 <吉林滿族的淵源及衍變考略>《社會科學戰線》 1992-2
- 張偉·田禾·趙永軍, 2016 <滾兔嶺文化與鳳林文化關係當議>《北方文物》 2016-4
- 張兆國, 2008 <三江平原七星河流域的古代民族>《黑龍江史志》 2008-11
- 張泰湘, 1981 <從北魏祖廟石室看烏洛侯的位置及其他>《求是學刊》 1981-3
- 張泰湘, 1982 <從最新考古學成就看歷史上的肅慎·挹婁人>《東北師範大學學報》 1982-5
- 田禾, 2004 <鳳林文化淺析>《北方文物》 2004-1

- 丁謙, 1915 《魏書各外國傳地理考證》(浙江圖書館叢書 제1집) 浙江圖書館
- 鄭英德, 1983 <烏洛侯地理位置再探>《黑龍江文物叢刊》 1983-1
- 趙永軍, 2006 <試論滾兔嶺文化>《北方文物》 2006-1
- 陳曉寧, 2009 <從東康文化看挹婁的社會性質>《黑龍江史志》 2009-14
- 馮恩學, 2011 <奈費爾德類型的文化來源>《北方文物》 2011-1
- 郝思德, 1987 <嫩江名稱考略>《東北歷史地理論著匯編(제1책)》 수록
- 項春松, 1991 <遼國交通驛道及驛館述略>《內蒙古東部地區考古學文化研究文集》 海洋出版社
- 黃星坤, 2007 <淺談滾兔嶺文化>《牡丹江大學學報》 2007-5

일본어 논저

- 白鳥庫吉, 1910-1912 <東胡民族考>《史學雜誌》 21-4~24-7
- 白鳥庫吉, 1919 <室韋考>《史學雜誌》 30-1~30-8
- 白鳥庫吉, 1935 <塞外民族>《東洋思潮》 12
- 白鳥庫吉, 1970 《塞外民族史研究(上)》(白鳥庫吉全集 제4권) 岩波書店
- 斯波義信, 2002 《中國都市史》 東京大學 出版會
- 松井等, 1913 <隋唐二朝高句麗遠征の地理>《滿洲歷史地理(一)》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日野開三郎, 1946a <夫餘國考>《史淵》 34
- 日野開三郎, 1946b <勿吉考>《史淵》 35
- 日野開三郎, 1951・52 <渤海の扶餘府と契丹の龍州・黃龍府>《史淵》 49-52
- 日野開三郎, 1988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東北アジア民族史(上)》 三一書房
- 日野開三郎, 1991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東北アジア民族史(中)》

三一書房

- 池內宏, 1930 <夫餘考>《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3
池內宏, 1934 <勿吉考>《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5
池內宏, 1941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6
池內宏, 1951 《滿鮮史研究(上世 제1책)》 吉川弘文館
池內宏, 1960 《滿鮮史研究(上世 제2책)》 吉川弘文館
津田左右吉, 1915a <勿吉考>《滿洲地理歷史研究報告》 1
津田左右吉, 1915b <室韋考>《滿洲地理歷史研究報告》 1
津田左右吉, 1964 《津田左右吉 全集(제12권)》 岩波書店

Conflicts Between Koguryo and Mulgil(勿吉)
in the Late 5th Century,
and Changes in the Northern Border Areas

Yeo, Ho-Kyu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conflicts that continued between Koguryo and Mulgil(勿吉) in the 5th century's latter half, and how those clashes affected the border space in the Northern regions. At the time, the central region of Mulgil was located at the midstream and downstream areas of the East-bound(東流) Song'hwa-jiang(松花江) river. While fighting Koguryo, Mulgil advanced its presence to the upstream of the same river before 475, and then in 475 finally made its debut on the international stage by dispatching a diplomatic envoy to the Northern Wei [北魏] government, via a waterway connecting the Song'hwa-jiang and Nen-jiang(嫩江) rivers as well as a land route crossing the Eastern mountain foot of the Daxing'an-ling(大興安嶺) mountain range.

After 475, Mulgil proceeded to the downstream area of the North-bound Song'hwa-jiang river, and even attempted to proceed in the direction of the Koguryo territory. This resulted in both sides fiercely fighting with each other at the said river's downstream area. In 494, the Late Buyeo(後扶餘) faction in the Nong'an(農安) area surrendered to Koguryo, and right before 503 and 504 Mulgil successfully annexed the above-mentioned downstream area of the North-bound Song'hwa-jiang river, following its prior occupation of the

East-bound Song'hwa-jiang river's upstream area.

Meanwhile, Koguryo and Mulgil competed diplomatically as well, to win several tribes in the North. In order to separate Mulgil and Northern Wei from each other, Koguryo discussed with Yuyeon(柔然) in 479 the division of the Jiduwu(地豆于) area. Koguryo's effort generated a much wanted effect, as it prevented Mulgil from sending an envoy to Northern Wei from 478 through 485. Yet this also caused a bit of a backfire for Koguryo, as its relationship with Khitan(契丹) deteriorated as a result. Mulgil took advantage of this new situation, by befriending Khitan and therefore managing to resume envoy-sending to Northern Wei.

Later, Koguryo found itself in an increasingly disadvantageous diplomatic situation, as it fared worse in several armed conflicts with Mulgil. With the Mulgil approaching the region, Koguryo came to share borders with it at the Daeheuk(大黑) mountain range. Koguryo's Northern territory was seriously compromised, and to make matters worse its connection with the North was partially blocked by Mulgil. It became much more difficult for Koguryo to communicate with Northern tribes because of the presence of Mulgil.

Key Words : Koguryo(高句麗), Mulgil(勿吉), Northern Wei (Buk-Wi, 北魏), Border area(接境空間), The several tribes in the north(北方諸族)